

석 사 학 위 논 문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이 협회참여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사단법인 대한가발협회를 중심으로 -

2015년

한성대학교 지식서비스&컨설팅대학원

지식서비스&컨설팅학과

매니지먼트컨설팅전공

이 현 준

석 사 학 위 논 문
지도교수 박현우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이 협회참여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사단법인 대한가발협회를 중심으로 -

2014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지식서비스&컨설팅대학원

지식서비스&컨설팅학과

매니지먼트컨설팅전공

이 현 준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박현우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이 협회참여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사단법인 대한가발협회를 중심으로 -

위 논문을 컨설팅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지식서비스&컨설팅대학원

지식서비스&컨설팅학과

매니지먼트컨설팅전공

이 현 준

이현준의 컨설팅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4년 12월 일

심사위원장 _____인

심 사 위 원 _____인

심 사 위 원 _____인

국 문 초 록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이 협회참여에 미치는 영향 연구 -사단법인 대한가발협회를 중심으로-

한성대학교 지식서비스&컨설팅대학원
지식서비스&컨설팅학과
매니지먼트컨설팅 전공
이 현 준

본 연구는 사단법인 대한가발협회에서 진행되는 협회의 목적사업인 민간자격검정, 기능경기대회, 그리고 창업반 교육들의 수행정도가 회원들의 성별, 나이, 경력, 지역 등 일반적인 특성들과 함께 회원들의 협회에 대한 참여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판별하고 그 영향력 정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실증분석결과, 목적사업의 모든 구성요소가 회원들의 협회에 대한 참여에 대하여 설정된 모든 가설이 정(+)의 영향으로 나타나 가설검증이 채택되었으며,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의 조절효과에서 민간자격검정에 성별과 지역이, 기능경기대회에서는 경력이, 창업반 교육에서는 성별이 각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론내용과 같이 회원들의 협회에 대한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개인별로의 특성을 잘 살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창업반 교육에서 할애된 시간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협회의 목적과 취지를 공유할 수 있도록 홍보유인물이나 홍보동영상의 상영 등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활동을 유도해야 한다. 또한, 협회에서 진행되는 각종 목적사업을 좀 더 집중적으로 관리, 시행함과 동시에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설문 등을 통해 수집, 도출하여 그에 맞는 제도적 보완이나 서비스를 개선하

고 향후 협회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외부 전문 컨설팅 지원을 받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위기관리능력 향상과 경쟁력 강화 등 협회의 활성화를 위한 변화를 모색해야하겠다.

【주요어】 가발, 대한가발협회, 민간자격검정, 기능경기대회, 창업반 교육, 협회참여

목 차

I. 서 론	7
1.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7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9
II. 이론적 배경	10
2.1 가발의 기초이론	10
2.2 가발산업의 역사와 시장	13
2.3 사단법인 대한가발협회에 대한 고찰	35
III. 연구 설계	41
3.1 연구모형 및 가설 설정	41
3.2 조사대상 및 조사도구	44
3.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46
IV. 연구 결과	47
4.1 응답자들의 일반적 특성	47
4.2 타당도와 신뢰도 분석	48
4.3 연구가설의 검증 결과	50
V. 결 론	63

참 고 문 헌	67
설 문 지	72
부 록	79
ABSTRACT	86

표 목 차

<표2-1> 가발의 분류	12
<표3-1> 설문지 구성	45
<표4-1> 응답자들의 일반적 특성	47
<표4-2> 목적사업의 수행정도의 요인분석 결과	49
<표4-3> 민간자격검정의 수행정도가 회원들의 참여도에 미치는 영향	50
<표4-4> 기능경기대회의 수행정도가 회원들의 참여도에 미치는 영향	51
<표4-5> 창업반 교육의 수행정도가 협회원들의 참여도에 미치는 영향	51
<표4-6> 민간자격검정의 수행정도가 협회원들의 참여의지에 미치는 영향 ..	52
<표4-7> 기능경기대회의 수행정도가 회원들의 참여의지에 미치는 영향	53
<표4-8> 창업반교육의 수행정도가 회원들의 참여의지에 미치는 영향	53
<표4-9> 민간자격검정에 응답자의 성별에 따른 조절효과	54
<표4-10> 민간자격검정에 응답자의 나이에 따른 조절효과	55
<표4-11> 민간자격검정에 응답자의 경력에 따른 조절효과	55
<표4-12> 민간자격검정에 응답자의 지역에 따른 조절효과	56
<표4-13> 기능경기대회에 응답자의 성별에 따른 조절효과	56
<표4-14> 기능경기대회에 응답자의 나이에 따른 조절효과	57
<표4-15> 기능경기대회에 응답자의 경력에 따른 조절효과	58
<표4-16> 기능경기대회에 응답자의 지역에 따른 조절효과	58
<표4-17> 창업반 교육에 응답자의 성별에 따른 조절효과	59
<표4-18> 창업반 교육에 응답자의 나이에 따른 조절효과	59
<표4-19> 창업반 교육에 응답자의 경력에 따른 조절효과	60
<표4-20> 창업반 교육에 응답자의 지역에 따른 조절효과	61
<표4-21> 가설 검증 결과 요약	62
<표4-22> 가설 검증 결과 요약	63

그 립 목 차

<그림2-1> 가발의 다양한 형태	12
<그림2-2> 콘로(Cornrow)	14
<그림2-3> 가발제조 공장 작업 모습	16
<그림2-4> 미국 뷰티서플라이 내부 전경	17
<그림2-5> 협회 조직도	38
<그림2-6> 협회 주요사업	39
<그림2-7> 유관기관과의 업무협력 상황	40
<그림3-1> 연구모형	42

I. 서 론

1.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인간은 사회관계적 존재로써 누구나 상대에게 아름답게 보이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한 대표적인 노력이 고대부터 머리에 장식하는 것 이였다. 이 때문에 머리에 풍성하게 장식하는 것은 부와 권위의 상징으로 여겨졌으며 최만중(2004)은 전통적으로 한국에서는 머리술이 적은 여인들이 다리(月子)를 달아 쪽을 진 것이 가발¹⁾의 시초로 보았으며, 삼국사기 등의 문헌에 의하면 신라 성덕왕 때에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는 편에 다리를 예물로 가져갈 만큼 귀중한 용도였으며, (장수만,2006) 유럽에서는 르네상스 시대로 넘어 오면서 인모를 이용한 가발이 등장 하게 되었으며, 그 후 16세기를 지나 17세기에 접어들면서 남자들의 직위를 나타내는 가발이 본격적으로 사용되어 지게 되었다. 이때의 가발이 현재와 유사한 형태로 발전하게 되었다.²⁾

1950년대 후반 세계적으로 가발을 이용한 머리모양이 미국(흑인)을 중심으로 유행하였으며 이때 패션상품이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가발이 등장하였다. 1960년대 시대상 노동집약적 산업에 강한 우리나라에서 1963년에 골목골목으로 많이 보던 풍경이 동네 옛장수들과 고물을 수집하는 상인들이 가발을 만들기 위한 재료로 당시 장발이었던 부녀자들의 머리카락을 수집하기 시작하면서 1964년 최초로 14,000\$를 수출하기 시작하더니 이듬해 100배에 가까운 1,550,000\$를 수출하였다. 이때 당시 미국에서는 정치적 이유로 중국산 머리카락으로 만든 가발제품이 수입 금지령이 내려져 덕분에 한국가발이 미국시장에서 호황을 누리게 되었다. 박정희 정부는 가발 기능공 양성소를 세우면서 가발산업을 전폭 지원하여 1970년에는 약 1억 달러로 우리나라 총 수출량의 9.3%를 차지하게 되었다. 단일품목으로는 섬유와 합판

1) 가발이란 대머리를 감추거나 분장, 장식을 위해 머리에 덧엮어 쓰는 자신의 머리가 아닌 가짜머리를 뜻한다.

2) 장수만.(2006). 미용학적 접근에 의한 탈모 및 가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디자인대학원.p.6.

다음으로 제 3위가 됐고, 이때 미국으로 이민 간 사람들이 가발장사를 하여 미국 내에서 '가발' 하면, '코리안(korean)'을 연상하게 되었다.

이렇듯 가발산업은 4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한국의 토종산업으로서 1960년대에는 한국 경제의 원동력이 되면서 1966에 설립된 한국가발수출조합이 쿼터 제도까지 운영 할 정도로 활발하게 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 세계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던 미국의 가발 수요가 급감하면서 위기를 맞자 대우와 반도, 한독 등 가발산업의 선두 기업들이 업종을 전환하면서 사양 산업으로 전락하기 시작했다. 또한, 1987년 이후 인건비가 상승됨에 따라 가격 경쟁력 약화로 인해 한국 가발산업은 서울에 본사를 두고 점차 중국과 인도네시아, 아프리카, 베트남 등으로 공장을 이전하였고 내수시장은 많이 축소하게 되었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부터 가발용 합성 섬유 (인조모)가 개발되면서 해외로 이전했던 한국의 2~3세대로 이어져온 많은 가발공장들이 가발산업발전에 대한 재도약을 기대하고 있던 지난 2008년 1월 15일, 가발관련 전문가들이 뜻을 모아 대한가발협회를 설립하였으며 국내최초로 민간 가발 자격증 설치 및 가발 교육 등 협회 차원의 가발산업 살리기 운동이 시작되어 2011년 6월에 지식경제부 장관의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현존하는 가발관련 협회 중 유일한 사단법인 협회가 탄생한 것이다. 최근에는 산업발전을 위해서는 인재약성이 최우선과제로 보고 교재 편찬, 교육커리, 기능대회 등을 개발하여 전문 인력을 양성함과 동시에 회원들이 확충되고 있으며 계속해서 협회와 산업규모가 발전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조직들이 그렇지만 회원들이 늘어나면서 회원 수 증대에 따른 양적 성장은 이루어질 수 있으나 협회의 활동에 대한 회원의 참여정도는 협회의 재 기능과 활동에 크나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게 되었다.(김용일, 2000).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고 긍정적 효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문가 집단(조직)에 대한 연구나 자료가 부족하고 전문가조직의 영향이 점차 증대하고 있는 상황(Morgan, 1990)에서 이러한 조직화의 논의는 당연한 것이며, 이를 위해 개인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고 충족

할 수 있는 제도 개선과 보완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단법인 대한가발협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목적사업인 민간자격검정, 기능경기대회, 그리고 창업반 교육의 수행정도가 회원들의 성별, 나이, 경력, 지역 등 일반적인 특성들과 함께 협회에 대한 참여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판별하고 그 유의성 정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예상되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향후 협회의 활성화 방안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헌연구와 함께 응답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고 기존의 협회 목적사업의 수행정도를 분석하여 이에 따른 회원들의 협회 참여에 대한 유의성을 파악하기 위해 실증분석을 병행하였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회원들의 일반적인 특징을 분석한다.

둘째, 사단법인 대한가발협회의 목적사업의 수행정도를 파악한다.

셋째, 협회의 목적사업의 수행정도에서 나타난 정도가 회원들의 협회에 대한 참여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

넷째, 협회에 대한 참여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본 연구를 위해 설문지를 전국에 있는 협회 회원 및 예비회원들 중 일부인 300명으로 한정하고 인터넷메일 및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따라서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가발조직과 관련한 선행연구의 부족으로 인하여, 객관성 및

보편성을 확보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둘째, 표본수가 제한되어 있으며 일반적인 조직에 적용하는 것은 다소 제한적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와 유사한 유형의 연구들을 일반화할 수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하여 분석대상을 확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 대상자들은 모든 설문에 성실히 응답하였다고 가정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2.1 가발의 기초이론

2.1.1 가발의 필요성

최근 들어 지하철이나 군중이 많이 모인 곳을 지나다 보면 심심치 않게 탈모를 가진 사람들과 가발을 착용하고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언론에서 언급 되고 있듯이 대한민국의 전체 인구 중 천만 명으로 다섯 명 중 한명은 탈모로 고민하고 있다. 그리고 남성의 전유물처럼 인식되었던 탈모나 가발이 최근에는 연령과 성별에 관계없이 성인 남성의 15~25%, 여성의 10~15%가 탈모 인구로 추산 되고 있어 그 심각성이 날로 커지고 있으며,³⁾ 특히 여성들에게 있어 외모적 손상은 사회활동에 있어서 심리적으로 많은 부담을 갖게 되며,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손수철(1993)은 대머리는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그르치게 하고 인생관조차도 변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으며, “외모를 가꾸는 현상은 ‘자신을 잘 가꾸는 자체가 경쟁력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회 인식이 팽배하면서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외모 가꾸기에 신경을 쓰고 있으며 조금이나마 더 나은 생활과 성공한

3) 장수만.(2006). 미용학적 접근에 의한 탈모 및 가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디자인대학원.,p.6.

미래를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였다.⁴⁾

사회활동을 하며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타인에게 잘 보이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는 학교나 직장 나아가 결혼이라는 과정을 겪으면서 현실적으로 경쟁이라는 상황을 피하기 어려우며 이때 경쟁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 철저하게 자신을 PR하고 자신의 매력을 발산하게 된다. 이때 내적요인도 있지만 최근 들어 외모에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특히 젊고 아름답고 건강하게 비춰지는 모습은 보편적으로 상대방에게 가장 빠르게 느껴지는 매력 포인트가 될 수 있으며 이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헤어스타일의 변화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를 주기 위해 일정한 량의 모발이 있어야 하는데 이때 물리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충족시켜주는 것이 바로 가발이다.

가발은 자신의 외모를 변화시키기 위해 투자하는 시간과 비용의 관점에서 가장 손쉽게 젊고 건강하게 보이도록 변화시킬 수 있는 수단이다. 최근 고령화 시대의 도래와 탈모인구의 증가로 인해 가발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소아 탈모를 비롯해 청년의 탈모로 인한 대머리가 늘어나고 있는 현상은 복잡한 사회구조에 따른 정신적 문제에 기인한 것으로 나이가 들면서 자연히 머리카락이 줄어드는 경우가 아닌 유전적 요인과 스트레스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탈모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⁵⁾라고 분석하였으며, 특히 중년여성들과 젊은 여성들의 가발애용으로 인해 한 가발전문 온라인 쇼핑몰은 연매출이 100억 원에 육박하며 60~70억을 넘는 업체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대한가발협회 통계자료) 이렇듯 가발수요의 급증과 대한가발협회의 창업교육 등으로 인해 신규업체들도 늘어나고 있으며 이런 과잉 경쟁을 막기 위해 고객들에 대한 제품과 서비스품질이나 유통, 운영시스템의 관리와 변화에도 발전과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4) 김민지(2008). 외모가 현대 사회의 성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원격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 장성혁(2013).맞춤가발착용실태및착용전후자아존중감과외모만족도. 1에서 재인용

5) 유현심.(2010). 탈모인들의 가발착용과 관리실태 및 인식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P1

2.1.2 가발의 종류 및 분류

가발의 종류에 대하여 표준화된 명칭이나 분류는 연구된바 없다. 단지 가발을 통용적으로 “Wig” 혹은 “Hair pieces”라 부르며 “Wig”는 인조가발과 여성들이 주로 쓰는 패션가발의 종류를 뜻한다. 그리고 주로 남성들이 탈모를 가리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가발을 "투페(Toupet)"또는 “투피(Toupee)”라고 표현한다. 6)

<그림2-1> 가발의 다양한 형태



위 <그림2-1>과 같이 모양이 다양하며 <표2-1>와 같이 소재, 형태, 용도 제조 방법 등에 따라 그 명칭 또한 다양한 것을 알 수 있다.

<표2-1> 가발의 분류

분류방법	명칭	비고
제조방법에 의한 분류	수제 가발(HAND MADE)	손으로 직접 모발을 심어 제작된 가발
	기계 가발(MACHINE MADE)	재봉틀을 이용하여 제작된 가발
	반수제 가발(HAND MACHINE MADE)	손과 재봉틀을 함께 사용하여 제작된 가발
주재료에 의한 분류	인모 가발(HUMAN HAIR)	100% 인모를 사용해 제작된 가발
	레미헤어(REMI WIG)	자연그대로의 인모를 사용하여 제작된 가발

6) 장수만.(2006). 미용학적 접근에 의한 탈모 및 가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인조모 가발(SYNTHETIC FIBER)	화학섬유로 만들어진 모를 사용하여 제작된 가발
	혼합모 가발(HUMAN HAIR SYNTHETIC FIBER BLEND)	인모와 인조모를 필요한 비율로 혼합하여 제작된 가발
사용 목적에 의한 분류	탈모 가발(TOUPET)	탈모커버를 위해 제작된 가발
	패션가발(멋내기가발)	멋내기용으로 제작된 가발
	항암 가발	암환자들을 위해 제작된 가발
형태에 의한 분류	전체 가발 (ALL WIGS)	두상 전체를 커버하는 가발
	반 가발(HALF HAIR)	두상의 반을 커버하는 가발
	부분 가발(SCRATCH WIG)	탈모된 부분의 일부를 커버하는 가발
대상에 의한 분류	남자 가발(MAN WIG)	남성 전용 가발
	여자 가발(WOMAN WIG)	여성 전용 가발
부착방법에 의한 분류	고정식 가발	결속식, 특수접착식
	탈착식 가발	클립식
기타 액세서리	헤어피스(Hair pieces)	액세서리로 사용되는 가발
	WEAVING	헤어에 직접 바늘로 누워서 붙이는 가발
	탑피스(TOP PIECE)	가르마 부분을 중심으로 가리기 위해 제작된 가발
	붙임머리(EXTENSION)	헤어 길이의 연장을 위해 제작된 가발
	매는끈(HAIR BRAID)	끈으로 액세서리의 일종

2.2 가발산업의 역사와 시장

흔히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볼리고 인식되는 "가발"이라고 하면 속칭 ‘대머리 아저씨’들이 탈모부위를 커버하기 위해 사용하는 부정적 인식의 도구나 멋쟁이 여성들이 패션아이템으로 사용하는 패션가발을 떠올리기가 쉽지만 세계적인 관점으로 보면 흑인 여성들이 사용하는 가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⁷⁾ 이는 흑인들의 특성상 머리카락이 곱슬머리이며 이 머리카락이 5-10cm 밖에 자라지 않고 때론 두피로 파고들어 고통을 주고 있다. 때문에 이런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머리카락을 단단하게 여러 가닥으로 땋아 머리에 붙인 흑인 전형의 머리인 콘로(Cornrow)를 해야 했고 아무리 화장을 하고

7) 장현석. NBSDA cosmobiz Magazine

이쁘게 장식을 하고 옷을 입어도 헤어스타일을 바꾸지 않으면 예쁘지 않으므로 어릴 때부터 할머니의 손을 잡고 가발매장을 가게 되었다. 미국 내 흑인 여성의 소비 패턴을 분석한 통계에 따르면 가계 소득의 30% 이상을 가발 구매 및 미용실 비용으로 소비한다고 하니 흑인들에 있어서는 가발이 생활필수품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형성된 소비 형태는 1950년대 이후 전 세계 가발 생산량의 절반을 미국이 소비하게 되는 초대형 시장으로 변모해갔다.

<그림2-2> 콘로(Cornrow)



자료제공 : (사)대한가발협회

대한민국은 국가 자본이 부족한 국내에서 설비자금이 적게 들며 국내 여성들이 긴머리가 대부분 이었던 시대에 가장 적합한 분야가 가발산업임을 인식하고 정부차원으로 지원하게 되었다. 한국산업개발연구원 백영훈 원장은 이렇게 회상한다. ‘독일에서 차관을 빌리는 조건으로 서독으로 광부와 간호사를 파견하고 3년 안에 갚기를 기약했으나 별다른 수단이 없었다. 이때 수출만이 살길이라 생각했던 정부는 오징어, 소금 등 1차 생산물이 전부인 시절에 30명의 세일즈맨을 데리고 세계 백화점을 돌던 중 뉴욕백화점에서 가발을 사기

위해 줄을 서있는 여성들을 보고 한국의 여건과 맞다 판단하고 정부 지원을 통해 단발령을 시행하면서 옛장수들을 동원해 수집하기 시작하였다. 이때 시골에서 모집된 3,000여명의 직공으로 구로공단에 가발공장을 설립하여 생산하면서 수출하게 된 것이 가발산업이 대한민국에 정착하게 되는 동기가 되었다.’

가발산업은 4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한국의 토종 산업으로서, 1960년대에는 한국 경제의 원동력이 되는 주요 수출 산업이 되었다. 당시에는 인모수집이 수월했기에 인모로 만든 가발을 수출하였으며, 1970년대까지는 한국의 중추 산업의 하나였다.”⁸⁾ 무역협회 통계자료에 따르면,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초반에 이르기까지 수출액 1억불 이상을 기록하기도 하였으나, 이후 대부분의 공정이 사람의 손에 의해 제조되는 노동 집약적 산업이기에 인건비가 상승한 국내에서는 더 이상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워 대부분 중국이나 동남아, 아프리카로 이전되게 되었다. 그러나 가발용 원사는 최근에는 중국에서도 개발, 생산되지만 아직 대부분이 한국과 일본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이 원사를 사용한 가발봉제는 중국과 인도네시아 및 아프리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최종 소비는 흑인이 분포하는 미국과 유럽, 아프리카 등이다.

가발산업은 대한민국의 역사적 사실 중에 경제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 사건이며 시대별 환경 속에서 다양하게 변화를 가졌다. 이에 시대적 사실을 근거하기 위해 당시 각종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을 인용하였으며 이 연구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2013한국산업기술사 조사연구의 수임기관인 실전전략연구소의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되었다.

8) 장현석. NBSDA cosmobiz Magazine

<그림2-3> 가발제조 공장 작업 모습



자료제공 : (사)대한가발협회

2.2.1 흑인들의 생활필수품, 한국 가발

1964년에 가발 수출이 처음 시작되면서 가발 공장들이 우후죽순 생겨났고 한독, 대우 등 대기업들 역시 처음에는 가발 사업으로 시작했다는 사실은 가발 제조업이 그 당시 얼마나 큰 힘을 가졌는지 알게 해준다. 심지어 대한항공이 최초로 해외로 출항시킨 항공화물도 가발이었으니 가발산업은 우리나라 수출역사에서 한 획을 그었다고 말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많던 가발공장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국내 가발 회사들 이름은 들어봤어도 국내에 있는 가발공장은 쉽게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대부분의 가발공장들이 저렴한 인건비, 값싼 운송비를 찾아 가발이 많이 팔리는 나라의 현지로 공장을 이전했기 때문이다. 중국, 동남아, 아프리카 등지로 많은 가발업체들이 떠났지만 그 중에서도 아프리카로 진출한 회사들이 그 곳 가발시장의 90%를 석권하며 위상을 떨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림2-4> 미국 뷰티서플라이 내부 전경



자료제공 : (사)대한가발협회

60년대 중반부터 호황을 누리던 가발 수출이 1970년에 정점을 찍은 후에는 국내 업체들 간의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마구잡이 덤핑수출, 품질 저하 등으로 국제 시장에서 그 경쟁력을 잃게 되었고 70년대 중반부터는 중소 가발기업들이 도산하기 시작했다. 이 때 가장 먼저 흑인가발 시장에 눈을 돌린 것은 보양산업이었다.⁹⁾ 그 당시 한국 가발 수출은 미국으로의 수출이 주종을 이루었기 때문에 백인들을 위한 가발에만 집중하고 있었고 이미 포화된 미국 시장과 미국의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기 때문이다.¹⁰⁾ 이때 보양산업은 크림프 컬 과 웨트 록 컬 이라는 흑인여성들을 겨냥한 가발업체의 최고 히트작을 현)코리아나 전병직 회장이 개발하면서 부도의 위기에서 극복했으며 현재도 전 세계 흑인가발 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흑인가발 시장에서 성공사례가 나오자 국내 가발업체들은 흑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아프리카로 진출하기 시작했다. 1983년에 가발업계는 아

9) “불황 때 투자 역발상 성공 가발 생산 보양산업”, 동아일보 1996.09.23., 한국산업기술진흥원-실전전략연구소, (2013 한국산업기술사 조사연구)내용 재인용

10) “3D업종 기업 세계시장 80% 석권”, 한국경제매거진, 2006.09.04., 한국산업기술진흥원-실전전략연구소, (2013 한국산업기술사 조사연구)내용 재인용

프리카 지역에 가발사절단을 파견해 수출전략을 모색했고,¹¹⁾ 그 해 미성상사가 최초로 아프리카 세네갈에 현지법인을 설립했다.¹²⁾ 이렇게 이어진 한국 가발 회사의 아프리카 진출은 진출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30년 넘게 아프리카 가발 시장 점유율 90%를 넘는 호황을 누리고 있다. 한국이 다른 어느 국가에도 선두를 내주지 않고 장기집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디자인과 원사 개발에 있다. 가발회사들은 주로 한국에 디자인과 소재 개발을 하는 본사를 남겨두고 생산과 판매만 현지공장에서 함으로써 타 업체들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핵심 기술의 유출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¹³⁾ 이러한 가발업체들의 성공은 가발 관련업체에도 그 영향을 주었다. 그동안 일본 업체들이 독과점 해오던 가발원사 시장에 뒤늦게 진출한 한국 기업인 우노엔컴퍼니가 2005년 세계에서 4번째로 상용화에 성공한 영킴 방지사와 인모 대체용 원사(우노론), 열에도 망가지지 않는 난열사 등을 앞세워 2011년에 아프리카 수출을 시작하였다.

2.2.2 1970년대 이전의 가발산업

1960년대 초에는 머리카락을 파는 이들과 사는 이들, 그리고 머리카락을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온 거리에 넘쳐났다. 그러던 중 1963년에 국내 최초의 가발공장인 서울통상이 설립되어 국산 가발 제작이 처음으로 이루어졌다. 서울통상이 설립 이듬해에 직접 만든 가발을 미국으로 수출한 것을 계기로 정부의 가발 수출 정책이 시작되었다. 정부는 1965년부터 가발기능공 양성소, 가발센터 등을 설립하고 보조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펼쳤으며 1966년에는 머리카락 수출을 금지시키면서 가발 원자재인 머리카락을 지키는 동시에 외화가득들이 더 높은 가발의 수출을 늘리고자 했다. 그 무렵 미국이 중국과의 정치적 대립으로 중국산 인모를 사용해 만든 홍콩 가발의 수입을 금지하면서

11) “업계 가발사절 아주 파견”, 매일경제, 1983.01.14., 한국산업기술진흥원-실전전략연구소, (2013 한국산업기술사 조사연구)내용 재인용

12) “세계 제1을 달린다. (7)가발”, 경향신문, 1990.09.10., 한국산업기술진흥원-실전전략연구소, (2013 한국산업기술사 조사연구)내용 재인용

13) 김용빈, “한국가발 초창기 집권의 비밀 - 국제 3각분업 모델”, KOTRA 해외비즈니스정보포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실전전략연구소, (2013 한국산업기술사 조사연구)내용 재인용

홍콩 가발 대신 한국 가발이 미국 시장을 점령할 수 있었다. 이에 가발수출이 급증하자 서울통상, YH무역 등 기존의 가발업체 외에도 중소 가발제조업체들이 난립하기 시작했고 중소기업들의 가격경쟁으로 품질이 저하되고 국제시장에서 한국 가발의 가격이 떨어지는 역효과가 발생했다. 이러한 역효과는 미국 수입업자들이 한국 가발의 품질에 불만을 품게 만들었고, 미국 정부가 1년 만에 홍콩 가발 수입 금지를 해제하여 한국 가발의 미국 시장 독점을 종결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가발의 수출은 빠르게 성장해 1968년에는 단일품목으로 전체 수출 4위를 기록했고 1969년에는 3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1969년 미국의 경기후퇴로 가발주문량이 급감해 많은 중소가발업체들이 폐업을 하면서 수출다변화의 필요성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1960년대 중반부터 정부는 가발 기능공 양성소를 세우고 가발산업을 전폭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 구체적인 계획으로 1966년 상공부는 각시도에 수출증진 목적으로 가내공업 센터 설립 계획을 세웠고 경기 수원시, 충남 대전 시내에 가발 센터 및 보조금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¹⁴⁾ 정부는 1966년 한일 2차 실무자 회담에서도 회담의 의제로 "가발수출 촉진"을 채택했을 정도로 외교적으로도 가발 수출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¹⁵⁾

이때 당시 정책적으로 업체 간 경쟁의 자정기구인 한국가발수출조합을 수출조합법 제9조의규정에 의하여 설립 인가하였으며, 가발생산업체의 난립과 업체 간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수출시장의 교란을 막기 위해 정부는 1966년 11월부터 가발수출조합원에 대하여 대미지역 공동독점수출권을 부여하였다. 공동독점수출권의 유효기간은 1년이며 6개월간의 수출실적이 자가생산수출인 경우 50천 달러, 비자가 수출인 경우 100천 달러이상 수준을 유지하지 못하면 상실하게 하도록 규정했다.¹⁶⁾

14) “가내공업센터설치 정부보조금 배정”, 경향신문 1966.01.13., 한국산업기술진흥원-실전전략연구소, (2013 한국산업기술사 조사연구)내용 재인용

15) “한일무역회담 보세가공, 일상지위 등 협의”, 동아일보 1966.04.22., 한국산업기술진흥원-실전전략연구소, (2013 한국산업기술사 조사연구)내용 재인용

16) 한국의 산업 (1971), 206, 한국산업기술진흥원-실전전략연구소, (2013 한국산업기술사 조사

1963년 설립된 서울통상주식회사를 통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가발이 제조되기 시작했다.¹⁷⁾ 이듬해인 1964년에 뉴욕의 한국무역관 부관장으로 있던 장용호는 한국산 가발이 유망할 것이라 생각해 무역공사를 사임하고 왕십리에 종업원 10명의 소규모 가발 공장 YH무역을 설립해 60년대 우리나라의 가발 산업을 이끈 쌍두마차 격의 가발공장 두 곳이 탄생했다.

가발 수출 중주국인 미국으로의 첫 수출은 1964년에 서울통상에서 먼저 시작했다. 미국에서 가발 붐이 조성되기 시작한 때인 64년 7월에 약 1만 4,000달러 치를 수출했다.¹⁸⁾ 후발주자인 YH무역 역시 1965년 7월에 가발 100개들이 한 박스를 뉴욕으로 첫 수출했다. 첫 해 대미 수출액 2만 달러 달성했으며 몇 달 먼저 가발사업을 시작한 안인모(대니 안)과 함께 미국 시장에 진출한 것이다. 가발의 수출은 순조로워서 수출 시작 4년만인 1968년에 단일품목으로 수출금액 4위를 기록하였고 이듬해에는 3위로 올라섰다. 이에 대부분의 가발은 수출용으로 판매되기 바빴으며 1965년도에 시작된 가발의 내수용 판매는 총 생산량의 3~4%만 차지했다.

국산 가발이 미국에 수출되기 시작한지 1년 후인 1965년 11월, 중국의 도발로 미국이 중공산인모를 사용한 홍콩제품에 대하여 수입금 지조치를 단행함으로써 우리나라 가발은 상대적으로 대미수출의 기회가 더욱 많아졌다. 대미수출 1위의 홍콩가발이 수입 금지되자 우리나라 가발이 1위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이다.¹⁹⁾ 그러나 미국 크로구만 상사와 수출 계약한 태원산업이 돼지털을 섞어 만든 가발을 공급하면서 가발수출계약 위반으로 고발당하는 등 불량 수출업체가 속속 드러나기 시작했다.²⁰⁾ 이에 미국 내 가발수입업자들이

연구)내용 재인용

17) 한국의 산업 (1971), 201, 한국산업기술진흥원-실전전략연구소, (2013 한국산업기술사 조사연구)내용 재인용

18) 한국의 산업 (1971), 201, 202, 한국산업기술진흥원-실전전략연구소, (2013 한국산업기술사 조사연구)내용 재인용

19) 한국의 산업 (1971), 201, 한국산업기술진흥원-실전전략연구소, (2013 한국산업기술사 조사연구)내용 재인용

20) “가발에 돼지털 섞어”, 동아일보 1966.02.16., 한국산업기술진흥원-실전전략연구소, (2013 한국산업기술사 조사연구)내용 재인용

한국수출업자들에 불만을 품고 미국 정부에 홍콩가발의 수입의 재개를 촉구했고 1966년 3월 1일, 미국 정부가 전기 3대 인모공급국들로부터 수입을 재개하기로 결정하면서 한국의 가발 독점 수출이 종료되었다.²¹⁾ 설상가상으로 가발수출의 대부분이었던 대한민국 가발업체들은 미국시장에 편중되어 있어 미국 내의 경기에 크게 좌우되는 취약성을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1969년부터 나타난 미국의 경기후퇴로 일시적이거나 미국으로부터의 가발주문량이 급격히 줄어들어 일부 가발 제조업체에서는 조업의 단축 또는 기능공의 감원 사태 등을 유발했다.²²⁾

2.2.3 1970년대의 가발산업

가발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70년대에도 계속되었다. 원자재 확보가 쉽고 노동력만으로 만들 수 있는 잡화상품들에 대한 수출지원이 1971년 잡화공업 5개년 계획으로 구체화 되었고 그 중 가발은 목표 수출액 10억 달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인모로 만든 가발보다 인조모로 만든 가발이 더 잘 팔리기 시작하면서 인조모 수입 관련 문제가 불거졌다. 카네카론을 독점한 6개 업체 뿐 아니라 인조모 가격의 상승으로 가발업체가 어려움에 빠진 것이다. 업계에서는 에루라, 세프론, 에어폴 등 카네카론 이후에 새로운 인조모를 도입해 원 자재난을 해결하고 기존의 제품들과 차이를 두기 시작했다. 정부와 업계의 이런 노력으로 가발은 1970년 품목별 수출 실적에서 2위를 차지했으나 70년대 중반으로 가면서 미국에서의 수입이 줄어들자 침체기를 걷기 시작했다. 이에 가발업체는 흑인용 가발, 부분가발 등 새로운 제품들을 생산해 수출하면서 아프리카, 동남아 등으로 수출지역을 다양화해 70년대 후반 세계에서 제1의 가발 공급국 반열에 올라섰다.

일본의 가발수요가 늘어나자 71년에 한국모발수출조합社에 한해 1년 한도

21) “약속 잘 안 지켜 무너진 독점”, 경향신문, 1966.03.01., 한국산업기술진흥원-실전전략연구소, (2013 한국산업기술사 조사연구)내용 재인용

22) 한국의 산업 (1971), 201, 한국산업기술진흥원-실전전략연구소, (2013 한국산업기술사 조사연구)내용 재인용

의 대일 독점 수출권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²³⁾ 그러나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중소 가발업체들의 반발을 사 1년 만에 독점수출권 업체를 86개로 확대 선정, 일본 뿐 아니라 미국에 대한 가발수출 독점권을 완화했다. 정부의 이러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들의 가발 덩핑 수출이 이어지고 예상보다 실적이 좋지 못한 독점권 획득 업체들이 많아 상공부는 72년 7월에 다시 수출업체 정리를 위해 독점수출권에의 신규진입을 완전봉쇄 함과 동시에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기존 독점수출업체의 권리를 회수해 대미38개, 대일 19개 업체로 정리했다.²⁴⁾

또한, 상공부는 수출품검사의 신속과 자율적 품질향상을 위해 1969년 9월 27일 상공부고시 제4769호로 ‘공장검사원제’실시를 공고했다. 공장검사원제란 수출품의 품질이 지속적으로 보장 될 수 있는 일부 생산기업체의 제품은 공장 자체의 품질검사 성적 서만으로도 수출검사기관의 합격 및 불합격 판정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이 제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과거 1년간 3백만 달러 이상 수출실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수출검사법 제22조에 의한 유자격검사원 1명 이상을 품질관리 전담자로 고정 고용, 별도로 정한 품목별 검사시설을 완비, KS표시허가나 이에 준하는 품질관리제도를 확립하고 있음으로써 심사위원회가 그 품질의 균일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인정, 과거 12개월간 검사 불합격률(재검사 신청 분포함)이 3% 미만, 과거 12개월간 품질 클레임에 대한 귀책 판정을 받지 않아야 할 것, 황색업자가 아닐 것” 등의 자격요건을 충족해야만 한다. 가발업계에서는 서울통상이 처음으로 이 자격요건을 충족해 1971년 1월 7일 부터 공장검사원을 통해 검사된 제품을 수출했다.

가발업계는 정부의 수출자율규제 지침에 따라 78년 4월부터 가발수출통관창구를 자율적으로 일원화 해 수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자 했다. 이러한 가발수출통관창구 일원화제는 수출 질서가 회복되고 해외수요 침체로 업계 경

23) “기능공예 쟁탈전 가발수출업계서 말썽”, 매일경제 1971.05.04., 한국산업기술진흥원-실전전략연구소, (2013 한국산업기술사 조사연구)내용 재인용

24) “가발신규수출 막아 상공부, 독점수출권 규제 조항삭제로”, 경향신문 1972.07.29., 한국산업기술진흥원-실전전략연구소, (2013 한국산업기술사 조사연구)내용 재인용

비절감이 요구되기 시작한 1979년 9월 1일에 폐지되었다.²⁵⁾ 이때부터 가발은 1970년 수출실적 기준으로 총 수출액의 9.3%를 차지, 단일품목으로는 합판에 이어 제2의 수출상품이 되었다.²⁶⁾ 그러나 그 뒤 국내 가발업계의 지나친 경쟁과 덤핑 때문에 사양화의 길을 걷게 된다.²⁷⁾ 더불어 그동안 수출의 대중을 이루던 인모가발의 시대가 가고 1970년부터 합성섬유가 인기 수출품이 되자 비싼 합성섬유 가발 원자재 수입으로 인해 가발산업의 외화가득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했다. 평균 가득률 58%, 가발산업은 48%에 불과해졌다.²⁸⁾ 나아가 1971년에 들어서는 가발업계가 일본, 홍콩등과의 경쟁 속에 덤핑을 일삼으면서 각종 수출지원금융만으로 기업 채산성을 확보하려하는 움직임이 커졌다.²⁹⁾ 미국의 불경기와 덤핑 성행으로 인해 1970년 기준가보다 46%나 하락한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었던 것이다.³⁰⁾ 이러한 와중에 중국이 인모가격을 10% 인하하면서 홍콩산 가발가격이 낮아짐에 따라 국제 시세역시 하락할 것으로 예상돼 덤핑 문제가 쉽사리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³¹⁾

결국 70년대 초 무분별한 덤핑수출로 국제시세에서 한국가발의 가격이 하락하자 수출업계는 상품 고급화를 위해 저질원사 수입을 거부하고 불량 바이어에 수출중단 등의 방침을 1973년 결의했다.³²⁾ 가발업계는 덤핑 방지 및 고급화 전략의 일환으로 1973년 8월 16일, 각 업체가 한 가지 원사를 독점

25) “통관제한 해제”, 매일경제 1981.06.04., 한국산업기술진흥원-실전전략연구소, (2013 한국산업기술사 조사연구)내용 재인용

26) 한국의 산업 (1971), 201, 한국산업기술진흥원-실전전략연구소, (2013 한국산업기술사 조사연구)내용 재인용

27) “한국산 신발류 대미수출”, 동아일보 1981.07.02., 한국산업기술진흥원-실전전략연구소, (2013 한국산업기술사 조사연구)내용 재인용

28) “외화가득률 저하”, 매일경제 1970.05.04., 한국산업기술진흥원-실전전략연구소, (2013 한국산업기술사 조사연구)내용 재인용

29) “헐값으로 수출 피해 가발, 의류 등 지원책 악용”, 경향신문 1971.06.04., 한국산업기술진흥원-실전전략연구소, (2013 한국산업기술사 조사연구)내용 재인용

30) “가발 수출가격 하락”, 매일경제 1971.06.08., 한국산업기술진흥원-실전전략연구소, (2013 한국산업기술사 조사연구)내용 재인용

31) “가발 국제가 하락”, 매일경제 1971.10.18., 한국산업기술진흥원-실전전략연구소, (2013 한국산업기술사 조사연구)내용 재인용

32) “불량 바이어 규제 가발 수출업계 ‘제값받기’ 본격화”, 매일경제 1973.05.30., 한국산업기술진흥원-실전전략연구소, (2013 한국산업기술사 조사연구)내용 재인용

해 특징제품을 개발, 유통하는 1사 1원사 1독점품종 개발을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또한, 무역공사는 1972 상반기에 가발 3천3백만 달러어치가 수출되면서 한국이 홍콩을 제치고 가발공급 1위 국가로 등극했음을 발표했다.³³⁾ 75년, 무역공사는 우리업체들이 서독 가발시장의 71%를 점유하고 있다고 보고했고³⁴⁾ 75년의 수출실적은 서독 2배, 영국 50%의 수출증가세를 보였으며, 미국 이외 기타지역 수출비중이 36%로 증가하면서 수출로 다변화에 성공하였으며 77년에는 한국산 가발이 동남아시아 시장의 90% 차지해 명실 공히 가발 공급 1위국의 위엄을 보였다.³⁵⁾ 그러나 60년대 말의 불황이 끝나고 1970년대 초 가발 수출이 다시금 살아나면서 대형업체들이 중소기업의 기능공들을 빼내는 행태를 여기저기서 자행했다.

70년대 초부터 대미 가발 수출이 사양화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71년도에 낙선 대통령이 비 전략물자의 對중국 금수조치를 해제함에 따라 국산 가발의 가격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고,³⁶⁾ 그해 8월에는 미국의 달러화 방위조치에 따른 10%수입부가세와 원화절상설로 원자재 수입 부담이 늘어 수출이 사실상 중단 상태에 빠졌다. 이러한 현상은 70년대 내내 지속되어 76년에는 한국 가발수출의 60%이상을 책임지는 미국시장이 구매력 감퇴로 위축되고 있는 현상을 보였다.³⁷⁾ 그러던 중 78년부터 美 세관이 한국산 26개 품목 관세특혜 철폐해 가발, 라디오 등 우리나라의 주요 26개 수출품에 대한 관세 특혜를 철폐하고 일반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대미 수출시장의 장점이 사라진 것이다.

33) “가발시장조사단 10월 美등 파견”, 매일경제 1972.09.19., 한국산업기술진흥원-실전전략연구소, (2013 한국산업기술사 조사연구)내용 재인용

34) “시장 점유율 71.3%”, 매일경제 1975.04.22., 한국산업기술진흥원-실전전략연구소, (2013 한국산업기술사 조사연구)내용 재인용

35) “한국산 가발 90%차지”, 매일경제 1977.04.19., 한국산업기술진흥원-실전전략연구소, (2013 한국산업기술사 조사연구)내용 재인용

36) “활기 띠는 미국업체”, 경향신문, 1971.04.16., 한국산업기술진흥원-실전전략연구소, (2013 한국산업기술사 조사연구)내용 재인용

37) “대미 가발수요감소 한국산 영향 클 듯”, 매일경제 1976.11.16., 한국산업기술진흥원-실전전략연구소, (2013 한국산업기술사 조사연구)내용 재인용

또한, 가발업체의 대형사건으로 1979년 8월 9일부터 8월 11일 사이에는 YH사건 또는 YH무역 여공농성사건이라 불리는 대규모 농성시위가 벌어졌다. 1964년 종업원 10명의 소규모 가발공장으로 시작했던 YH무역은 1970년에 4000명이 넘는 종업원을 거느리며 수출 1000만 달러를 달성하여 철탑산업훈장을 받는 대기업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그 종업원의 대다수가 갓 서울에 상경한 어린 여성들이었고 YH무역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박봉과 열악한 근로조건에 시달려야만 했다. 우여곡절 끝에 생산직 여공들 중심으로 노조가 1975년 5월에 결성되었지만 노조결성을 주도했던 자들은 해고되었고 관리직 사원들과의 차별대우는 여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고 살기 위해 열심히 일하던 YH여공들에게 더욱 큰 시련이 찾아왔다. 70년대 말 들어 가발수출산업이 사양화하기 시작한데다 경영진의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인해 YH무역이 1979년 4월 30일자로 폐업하였고 남아있던 여공들은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된 것이다.

2.2.4 1980년대의 가발산업

정부는 가발의 품질을 높이고 가발업체의 수출관련 부대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가발 수출 자율규제를 실시하고 가발 통관 업무를 전국 세관으로 확대하는 한편 가발원사에 대한 관세 면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전폭적인 지지를 계속했다. 1983년에는 가발의 품질이 안정되었다는 판단 아래 수출검사를 면제함으로써 수출 과정에 신속을 기했다. 한국 가발의 품질이 고급화되어 기존의 저가 가발 수출에서 벗어나 고가 가발 위주의 수출이 활발해져 외화 가득률이 높아졌다. 가발업체들 인건비와 운송비가 증가하자 인건비와 운송비를 줄일 수 있는 아프리카, 중국 등에 법인 및 공장을 설치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중국의 천진시에는 한국가발업체들이 모여 세계 최대의 합성섬유 가발 생산단지를 이루게 됐다. 80년대 후반 중국이 저가 가발로 세계 시장을 잠식하기 시작했지만 이미 고급가발 생산체제로 전환한 한국의 경쟁상대는 되지 못해 한국은 세계 1위 자리를 80년대 말까지 고수하게 되었다.

정부는 1980년 1월 17일에 수출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수출절차 간소화하기 위해 크라프트라이너와 가발원사 등 2개 품목의 관세와 방위세 면제키로 '수출용권재료에대한 관세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6조 2조등의 규정에 의한 가발원사등의 관세율변경에 관한 규정안'을 발표했다.³⁸⁾ 이는 사양산업화 되어가는 가발산업을 다시 활성화 시키려는 노력으로써 정부는 1981년에도 한차례 더 가발원사에 대한 관세 면제를 시행하였으며 가발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노동인력의 전문직화를 위해 1982년 4월 29일 제정된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으로 국가기술자격인 가발기능사보 시험이 처음으로 시행되었다.³⁹⁾

70년 이후 계속 하락하던 모발수출이 1980년에 들어 반등세를 지속했다. 80년 8월 누계금액이 전년 동기에 비해 7% 신장된 것이다. 이 같은 수출실적은 가발품을 이루었던 7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대비 신장된 실적이었다.⁴⁰⁾ 이는 실제로 수출 물량이 늘지는 않았으나 1983년 기준으로 25개로 축소된 가발전문 업체가 품질고급화를 통해 매년 5천 5백만 달러 수출을 유지해 안정화추세를 보이는 동시에 채산성까지 증가했기 때문이다.⁴¹⁾ 이러한 가발의 수출회복세는 80년대 말까지 계속 되어 전년대비 적게는 8%에서 많게는 25%까지 신장을 계속했다. 비교적 고가품인 인모가발의 수출이 늘고 흑인용 부분가발 수출이 호조를 보인 덕분이다.⁴²⁾

이후, 80년대 초부터 가발 수출이 꾸준히 신장되어 왔으나 70년대까지 연간 1억 달러가 넘게 수출되었던 것에 비하면 절반 밖에 안 되는 수출 수준이 지속되어 왔다. 그러다 1987년에 들어서야 80~86년도의 평균 수출액을 7월에

38) “가발원사 관세면제 경쟁력 강화 위해”, 매일경제 1980.01.17., 한국산업기술진흥원-실전전략연구소, (2013 한국산업기술사 조사연구)내용 재인용

39) 국가기술자격법, 한국산업기술진흥원-실전전략연구소, (2013 한국산업기술사 조사연구)내용 재인용

40) “모발수출 다시 늘어 작년보다 7%신장”, 매일경제 1980.09.06., 한국산업기술진흥원-실전전략연구소, (2013 한국산업기술사 조사연구)내용 재인용

41) “가발 수출 안정세”, 매일경제 1983.11.05., 한국산업기술진흥원-실전전략연구소, (2013 한국산업기술사 조사연구)내용 재인용

42) “가발수출 계속 늘어 작년보다 25% 신장”, 매일경제 1989.07.06., 한국산업기술진흥원-실전전략연구소, (2013 한국산업기술사 조사연구)내용 재인용

이미 돌파해 70년대의 영광을 찾을 기미가 보이기 시작했다. 이에 가발업계는 미국에 편중되어 있는 시장을 다변화해 일본, 영국, 프랑스, 호주, 세네갈 등에 대한 집중적인 시장개척활동을 벌이는 한편, 미국 시장의 잠재 수요 개발에도 적극 나서기 시작해⁴³⁾ 1980년대에는 가발공장들이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해외 현지법인을 설치하거나 해외 공장을 앞 다투어 건설하기 시작했다. 미성상사는 1983년에 아프리카 세네갈에 현지법인을 설립, '비너스'라는 브랜드 가발로 연간 50백만 달러 규모의 판매실적을 올렸다.⁴⁴⁾ 동영산업은 1988년 7월에 한국 업체 중 처음으로 중국에 진출했다. 중국과 수교가 없어 독자 진출이 어려워 일본 난요사와 합작으로 '천진에약공예품유한공사'라는 가발공장을 차렸다. 이후 80년대 후반부터 들어온 한국 가발업체들이 모여 세계 최대의 합섬섬유 가발생산단지를 이루었다.

1989년 가발 수출실적은 1억 1천 4백만 달러로 70년대의 수출수준을 회복했으며 세계시장 가발 판매액의 65%를 차지해 1위를 고수했다. 6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가발 수출 호황으로 너도나도 가발사업에 뛰어들어 가발 업체가 200개 이상이 된 반면 71년부터 78년까지 줄어든 해외수요 때문에 덤핑수출로 제 살 깎기를 하고 70%이상이 폐업하게 되는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결국 1위 자리를 빼앗기지 않은 것이다. 88년부터 강력한 경쟁국으로 등장한 중국도 그 품질 수준이 낮아 한국산 가발을 이길 수는 없었다.⁴⁵⁾ 그러나 악제는 계속되었다. 1988년을 기점으로 중국이 저가 가발로 세계 시장을 잠식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미 고급화 전략으로 생산체제를 바꾼 한국산 가발과는 그 품질에서 현저한 차이가 나 생각보다 큰 경쟁상대가 되지 못했다.⁴⁶⁾

2.2.5 1990년대의 가발산업

43) “가발 해외시장 다변화”, 매일경제 1987.10.05., 한국산업기술진흥원-실전전략연구소,(2013 한국산업기술사 조사연구)내용 재인용

44) “‘옛 영화 해외서 찾아보자’ 가발업계 현지공장 활발”, 매일경제 1990.01.12., 한국산업기술진흥원-실전전략연구소,(2013 한국산업기술사 조사연구)내용 재인용

45) “세계 제1을 달린다 7.가발”, 경향신문, 1990.09.10., 한국산업기술진흥원-실전전략연구소,(2013 한국산업기술사 조사연구)내용 재인용

46) “세계 제1을 달린다. (7)가발”, 경향신문 1990.09.10., 한국산업기술진흥원-실전전략연구소,(2013 한국산업기술사 조사연구)내용 재인용

그동안 수출 위주였던 가발산업이 1990년대에 들어 내수시장으로 눈을 돌렸다. 젊은 여성들 사이에 패션가발이 크게 유행하고 늘어가는 탈모인구로 인해 고급 가발의 수요도 커졌기 때문이다. 이에 공업진흥청은 가발에 대한 KS 규격을 마련해 허가를 받도록 했으며 1995년에 중소기업 고유 업종에서도 해체해 가발산업에 대한 규제를 대부분 완화했다. 1982년에 시행되기 시작한 가발기능사보 자격도 폐지되어 사실상 가발산업은 정부의 지원 및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게 됐다. 소비자들의 수요는 저가 패션가발과 고가 탈모용 가발로 이원화 되었다. 패션가발의 경우 미용실보다 싼 가격에 유행하는 스타일에 따라 포니테일형, 부분염색 가발 등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고급 가발의 경우 소비자들의 두상에 맞게 맞춤 디자인을 해주고 고온에도 견디는 형상기억모발이 등장해 큰 인기를 누렸다. 내수 시장의 활성화로 인해 남대문시장에 한성헤어플라자라는 최초의 대형 가발전문상가도 생겨났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가발 원사를 생산하는 업체가 나타났다. 국산 가발 원사의 개발은 가발 제조단가를 낮추 주었다. 인건비의 상승으로 패션가발을 만드는 공장들은 해외로 이전하였고 고가의 제품이나 신제품을 개발하는 소규모 공장들만 국내에 남게 되었다.

이에 중소기업 고유 업종으로 대기업의 진출이 금지되었던 가공 및 제조업들이 1994년 9월부터 고유 업종에서 제외되기 시작했다. 상공자원부는 중소기업의 자생력과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정한 237개 중소기업 고유 업종 가운데 58개를 94년 9월에, 95개를 95년 1월에, 49개를 97년 1월에 해체하기로 했다.⁴⁷⁾ 가발은 2차 해체 단계인 1995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중소기업 고유 업종에서 제외되었다.⁴⁸⁾

그러나 산업의 안정화에 발맞추어 패션화 경향과 함께 일반인의 가발 수요가 크게 늘어나자 공업진흥청은 가발에 대해 한국 산업규격과 심사기준을 제

47) “중기 고유 업종 단계해체”, 경향신문 1994.07.14., 한국산업기술진흥원-실전전략연구소, (2013 한국산업기술사 조사연구)내용 재인용

48) “단계적으로 풀릴 중소기업 고유 업종”, 경향신문 1994.07.14., 한국산업기술진흥원-실전전략연구소, (2013 한국산업기술사 조사연구)내용 재인용

정해 95년 2월부터 KS허가 신청을 받기로 했다. 가발에 대한 KS규격은 가발의 겉모양, 치수와 무게, 성능 등으로 구분해 규정된다. 겉모양은 제품의 모양, 색의 조화, 탈모상태 등을 점검하고 치수는 소비자욕구에 민감한 패션제품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둘레 깊이, 앞뒤 등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통용되는 치수를 기준으로 한다. 무게 역시 패션과 컬러가 중요시되는 품목의 특성을 최대한 살리도록 폭넓게 규정하고 있고 성능은 모(毛)의 인장강도, 정전기 발생여부, 세탁 견딤 등의 세부항목을 설정해 제품의 품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⁴⁹⁾

이때 (주)대화가 1995년 7월 4일, 업계최초로 공진청으로부터 KS마크를 획득했다. 이는 국내 첫 KS마크 일 뿐 아니라 가발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도 첫 표준규격이 나온 것이다. 가발업계는 93년까지 수출에 주력, 메이드인코리아로 보증을 받아왔으나 지난해 초부터 대화, 보양산업 등 몇몇 업체에서 내수에 참여하면서 KS마크의 필요성을 느껴왔고 이에 대화에서는 6개월간 품질 생산, 관리능력 등 30개 항목의 검사를 거쳐 KS마크를 획득한 것이다.⁵⁰⁾

제도적으로 1982년에 처음 시행되어 가발기능사보 자격증으로 미용실, 가발회사 등에 취직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나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으로 1999년 3월 28일에 이 자격이 폐지되었다. 몇몇 기능사보 자격은 경력, 시험 등을 통해 기능사로 승격이 가능하나 가발기능사보의 경우 폐지 전까지의 자격은 계속 유효하지만 기능사로의 승격 불가하게 됐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인조모가발에 쓰이는 합성섬유(가발 원사) 대부분을 수입해왔다. 그러나 90년대에 들어서는 가발 원사를 개발하는 회사들이 생겨나 가발 원재료의 국산화가 시작되었다. 대경에서는 1996년에 국내 최초로, 세계에서는 네 번째로 PVC 합성원사를 개발했다. 이 원사는 패션가발용 및 인형

49) “가발 KS품목 포함”, 매일경제 1994.11.16., 한국산업기술진흥원-실전전략연구소, (2013 한국산업기술사 조사연구)내용 재인용

50) “가발에 첫 KS마크, 대화”, 한국경제 1995.07.05., 한국산업기술진흥원-실전전략연구소, (2013 한국산업기술사 조사연구)내용 재인용

부자재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제품으로, 당시까지 국내에서는 원료배합과 가공기술이 어려워 생산업체가 없어 전량 일본에서 고가로 수입해 사용해 왔다. 전 세계적으로 일본 3개사가 독점 생산 및 공급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대경이 개발한 원사는 외국에서 수입한 주원료를 완전 국산화했으며 저가로 생산되고 있는 PVC레진과 부재료 등 약 15가지 첨가제를 사용해 적정 응용온도를 맞춰 실 형태로 방사한 것이 특징으로 가발 수출의 외화획득 및 가득률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⁵¹⁾

80년대 말까지 꾸준히 신장해오던 가발 수출 실적이 90년대의 시작부터 감소하기 시작했다. 1990년 4월에는 전년 동기에 비해 13.2%나 수출이 감소했다. 이 같은 수출 부진은 노동집약적인 가발업체가 인력난과 임금상승 등으로 국제경쟁력 상실했을 뿐 아니라 대형 가발 업체들이 중국과 인도네시아 등지에 해외 공장을 건설하고 현지 직수출에 나섰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⁵²⁾ 그리고 80년대 말에 시작된 가발업체들의 공장 해외이전이 90년대에도 계속되어 국내에는 후발국에서 생산할 수 없는 고난도 제품이나 신제품만을 생산하는 소규모라인들만 남게 됐다. 이에 따라 1994년에는 보양, 미성상사, 다림실업 등 주요 가발업체의 해외생산 물량이 월 10만~30만개 수준인 반면 국내 생산은 월 1만개 내외에 머무르게 됐다.⁵³⁾

이 때문에 가발산업은 그 시작부터 발전과정까지 계속해서 내수보다는 수출에 주력했던 산업이었는데 90년대 초부터 줄어든 해외 수요와 반대로 증가한 국내 수요로 인해 내수 산업으로 변모하기 시작했다. 그 대표적인 예로 1967년에 설립된 보양산업이 있다. 보양산업은 전체 생산량의 70%를 전 세계 40여 개국에 수출해 세계 가발시장의 약 40%를 점유한 세계 제일의 가발업체로써 30여 년간 수출만 해왔다. 그러나 국내의 소득수준 향상과 더불어

51) “가발, 인형용 PVC 합성원사, 대경”, 매일경제 1996.05.31., 한국산업기술진흥원-실전전략연구소,(2013 한국산업기술사 조사연구)내용 재인용

52) “가발수출격감”, 매일경제 1990.05.25., 한국산업기술진흥원-실전전략연구소,(2013 한국산업기술사 조사연구)내용 재인용

53) “신발, 가발, 피혁, 완구 작은 공장 늘어난다. 매일경제 1994.02.21., 한국산업기술진흥원-실전전략연구소,(2013 한국산업기술사 조사연구)내용 재인용

가발수요가 늘자 93년부터 자체 상표인 ‘스칼렛’을 개발해 국내 시장에 뛰어들었다. 보양산업의 대표는 “1인당 국민 소득이 6천 달러를 넘어서면 여성들이 멋을 내기 위해 가발을 찾게 된다.”면서 “지난 93년 12월 국내에서 스칼렛이란 여성용 패션가발을 내놓은 후 첫해에만 90억 원 치나 팔았다.”고 내수 시장 진출 성공 스토리를 전했다.⁵⁴⁾ 이에 보양산업은 국내에 대형직영점을 열고 홍보일환으로 패션가발 콘테스트를 여는 등 다양한 광고를 통해 1995년에는 첫해의 두 배인 170억 원의 국내 수익을 올릴 계획을 세웠고 1994년부터 내수 판매를 시작한 (주)대화 역시 10개의 백화점 매장을 연데 이어 95년에는 모두 30개로 매장을 늘릴 계획을 세우는 등 대형 가발업체들의 내수 시장 공략이 본격화 되었다. 관련업계 역시 가발내수시장 규모가 시장형성 첫해인 94년의 1백억 원 규모에서 95년에는 2백억 원대로, 그다음 해는 그 두 배인 4백억 원대로 커질 것으로 예상한 것이 적중했다.⁵⁵⁾

바로 남대문시장에 ‘한성헤어플라자’라는 이름으로 1999년 10월에 국내 최초의 가발전문상가가 등장했다. 이 상가는 100여 평의 매장 면적에 80개의 점포가 들어서 패션가발을 비롯한 각종 가발과 가위, 빗 등 미용소품을 취급했다. 한성헤어플라자의 대표는 “우리나라 가발은 세계 시장 점유율이 90%에 육박하는데도 불구하고 국내에 이렇다 할 가발전문상가가 없었다”고 상가 개설 이유를 밝혔다.⁵⁶⁾

그리고 가발의 수요가 점차 줄어들고 있던 미국에 다시 한번 가발 열풍이 불었다. 90년대 초 신디 크로포드 등 일류모델들의 부분가발, 부분염색 등 새로운 헤어스타일이 일반 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다. 화려한 컬러의 부분가발을 머리에 살짝 덧대는 형식으로 업계 전문가들은 이 유행이 우리나라에도 곧 전파될 것으로 내다봤다.⁵⁷⁾ 실제로 부분 가발은 우리나라에서 1994

54) “정상에 오른 해외중기 현지프로 30.보양산업(국내편) 가발”, 매일경제 1995.12.21., 한국산업기술진흥원-실전전략연구소,(2013 한국산업기술사 조사연구)내용 재인용

55) “가발 내수영업 강화, 업계 잇달아 대형매장 개설”, 한국경제 1995.04.18., 한국산업기술진흥원-실전전략연구소,(2013 한국산업기술사 조사연구)내용 재인용

56) “남대문에 가발전문상가 생긴다. 한성헤어플라자”, 매일경제 1999.09.15., 한국산업기술진흥원-실전전략연구소,(2013 한국산업기술사 조사연구)내용 재인용

57) “부분염색에 부분가발’ 美서 선풍”, 경향신문 1992.01.23., 한국산업기술진흥원-실전전략연구

년을 기점으로 크게 유행하기 시작해 90년대의 인기 아이템이 되었다.

2.2.6 2000년대 이후의 가발산업

2000년대 들어 국내 패션가발 시장이 사양화되고 가발 수출도 여전히 부진하여 국가 차원의 정책이나 제도가 전무해졌다. 이에 민간 가발 자격증 설치 및 가발 교육 등 협회 차원의 가발산업 살리기 운동이 시작되었고 현재에도 진행 중이다. 패션가발 수요가 줄어들어 따라 200여개에 달하던 가발 점포들이 2000년대 초반에는 60여개 정도만 남을 정도로 가발 상가가 고사위기에 처했지만 볼륨(키높이) 가발, 군인용 가발, 구레나룻 가발 등 특정 층의 수요를 겨냥한 이색가발들이 등장해 인터넷을 통해 활발히 거래되기 시작했다. 반면, 탈모인구는 지속적으로 늘어 고급 가발 제조업체들의 품질 경쟁이 더욱 심화되었다. 하이모와 밀란이 통풍성, 안정성 등을 높일 수 있는 부착 법을 계속해서 개발해 나가고 있으며 우노앤컴퍼니, 세림화이버 등이 고온에도 견디는 가발 원사와 항공 가발 원사 등을 개발해 가발의 품질을 높였다. 가발 원사 기술의 경우 해외로의 기술 유출 시도가 일어났을 만큼 10년 안에 세계적인 반열에 올라섰다. 아프리카 시장으로 진출한 국내 가발기업들의 매출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90년대 중반 200여개에 달하던 가발 점포들은 2000년 들어 매출이 급감해 2001년에는 60여개 정도의 점포만 남게 됐다. 중국산 염가 가발의 범람으로 수출이 줄어드는데다 발모기술의 발달에 따라 수요가 급감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젊은층에서 머리염색(일명 브릿지)가 유행하면서 패션가발 수요가 크게 줄어 들었다. 남대문시장 내 최대 가발상가였던 ‘한성 헤어플라자’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여서 개장 초 80여개에 달했던 점포가 절반으로 줄어들었다.⁵⁸⁾ 그러나 남대문 가발상가의 존폐위기처럼 오프라인에서 사양산업이라 여겨지던 가발이 인터넷에서는 활발히 판매가 되어 2003년에는 2002년보다 판매량

구소, (2013 한국산업기술사 조사연구)내용 재인용

58) “남대문 가발 상가 고사 위기”, 매일경제 2001.02.01., 한국산업기술진흥원-실전전략연구소, (2013 한국산업기술사 조사연구)내용 재인용

이 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났다.

1999년 설립된 국내 유일의 인조가발원사 제조업체인 우노엔컴퍼니가 업계 진출 10년만에 세계 3위 업체가 됐다. 우노엔컴퍼니의 대표인 김종천 사장은 창업을 준비하던 중 친구인 김환철 전북대 섬유소재시스템공학과 교수로부터 인조가발사를 사업아이템으로 제안받고 산업대학원에 입학해 관련 기술을 배워 1999년에 ‘우노파이버’라는 이름으로 회사를 설립해 폴리염화비닐(PVC) 합성사 시장에 뛰어들었다. 4억달러 규모의 세계 가발원사 시장은 그동안 일본의 거대 화학기업인 ‘가네카’와 ‘덴카’가 30여년 동안 독과점 해왔다. 이에 우노엔컴퍼니는 후발업체의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해 기존 경쟁제품보다 질감이 부드럽고 강도는 더 센 난연합성수지(PET)을 2004년에 개발해 2005년에 세계에서 4번째로 상용화에 성공했다. PET 섬유의 성공으로 자신감을 가진 김 사장은 영킴 방지사(TF)와 인모 대체용 원사(우노론)를 일본 업체보다 앞서 개발해 2011년부터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 메이저 유통업체에 공급하며 급성장했다. 결국 우노엔컴퍼니는 설립 8년만에 앞서 언급한 두 일본 업체에 이어 세계 3위 업체로 올라섰다.⁵⁹⁾ 2008년에는 천만불 수출탑을 수상하기도 했고 2010년에는 가발 관련 업계 최초로 코스닥에 상장하는 등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다.

현재 우노엔컴퍼니는 업계 처음으로 아프리카 시장에 진출을 준비 중이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이글퍼니처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기로 했으며 건물 리모델링이 완료되면 현지법인에 임대해 213년 하반기부터 본격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다. 주력 생산품은 난연성이 뛰어나고 촉감이 부드러운 PVC원사와 아프리카 현지인에 맞게 자체 개발한 영킴 방지사로 2013년 월 95만톤의 양산능력을 갖춘 뒤 2014년 중에 200톤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아프리카는 전세계 가발의 95%를 소비하는 흑인들이 밀집해 있는 세계 최대 시장으로 현재 각국별로 1~2개씩 수십여개의 가발 제조업체가 들어와 있다. 하지만 재료인 가발원사 업체가 아프리카에 진출하는 것은 우노엔컴퍼니가 처음이다.

59) “김종천 우노엔컴퍼니 사장, 열에 강한 가발로 아프리카 공략”, 한국경제 2013.02.05., 한국산업기술진흥원-실전전략연구소,(2013 한국산업기술사 조사연구)내용 재인용

고객인 가발제조업체가 아프리카 현지 공장에서 원사를 주문할 경우 납기, 선박 운송 및 창고 보관비용 등을 대폭 줄일 수 있다. ⁶⁰⁾

국내 가발 원사 기술이 발전되어 많은 달러를 벌어들이게 되자 이 기술을 빼돌리려는 산업스파이가 나타나는 상황이 벌어졌다. 2008년 9월 24일, 국내의 한 중소 가발 업체의 임직원 4명이 가발 원사 제작 공정과 필요한 기계 설비 등의 내용이 담긴 파일들을 이동식 디스크에 담아 중국으로 출국하려다 구공항에서 국가정보원과 경찰에 붙잡힌 것이다. 중국은 자기들에게 없는 원사 제조 공장을 세우려고 이들을 포섭해 이들의 회사가 가지고 있던 사람 머리카락과 거의 비슷한 색깔을 내는 가발 원사 기술을 빼돌리려 했다. 당시 이들을 검거했던 전북경찰청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이 기술이 중국으로 빼돌려졌을 경우 향후 5년간 1000억원의 손실을 봤을 것이다. ⁶¹⁾

2000년대 후반에는 미용실 비용을 절약해 원하는 머리스타일을 가질 수 있는 패션가발을 구입하는 ‘알뜰 가발족’이 늘기 시작했다. 미용실에서 파마나 염색으로 5만원 이상을 지출하는 것에 비해 패션가발은 1~2만원대의 저렴한 가격이며 5분 이내에 최신 머리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여러 가발로 원하는 때 스타일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2009년 전체 가발 판매량의 20%가 남성고객이라는 점이 특이한데, 이는 불황으로 이·미용비를 아끼려는 알뜰족 남성이 늘어난게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드라마 속 인기스타의 머리스타일을 따라하려는 남성들이 는 것도 또 하나의 이유다.⁶²⁾

그리고 본 연구의 주 대상인 대한가발협회는 2008년 설립이후 2011년 6월에 지식경제부 장관의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현존하는 가발 관련 협회 중 유일한 사단법인 협회가 탄생했다. 대한가발협회는 국제두피가

60) “우노엔컴퍼니, 아프리카에 가발용원사 생산공장 건설키로”, 파이낸셜뉴스 2013.05.06., 한국산업기술진흥원-실전전략연구소,(2013 한국산업기술사 조사연구)내용 재인용

61) “가발 기술 유출 시도 산업 스파이 4명 검거”, KBS 2008.9.24., 한국산업기술진흥원-실전전략연구소,(2013 한국산업기술사 조사연구)내용 재인용

62) “‘불황+꽃남열풍’에 가발 판매량 급증”, 한국경제 2009.03.11., 한국산업기술진흥원-실전전략연구소,(2013 한국산업기술사 조사연구)내용 재인용

발전문가연합의 세계본부 역할을 하는 단체로 국내 가발과 두피 교육의 표준화를 목표로 설립됐으며 미국, 중국 등 각국 본부의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대한가발협회는 국내 가발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 뿐 아니라 국내외 가발 관련 한인 기업들 간의 정보교류와 협력의 매개체 역할을 담당하며 가발산업의 세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활동, 정보제공 활동, 각종 관련 행사 지원 등을 하고 있다.⁶³⁾

2011년 12월 대한가발협회가 가발 관련 유일한 민간자격증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했다. 대한가발협회의 ‘가발전문가’ 자격증은 2008년 5월부터 시행된 ‘민간자격 등록제’에 따른 것으로써 국가 외 법인·단체·개인이 신설해 관리·운영하는 자격증으로 각 부처가 관리하는 등록 민간자격이며,⁶⁴⁾ 2011년 10월부터 첫 회 개최 3년 연속으로 산업통상자원부 후원으로 매년 1회 이상 일반인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능경기대회를 주최하고 있으며 국내 유일의 가발기능경기 대회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민간자격검정과 기능경기대회, 창업반교육 등 협회가 주력하고 있는 목적사업이 협회와 회원들 간의 참여와 교류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통계적 조사를 통해 알아보기로 한다.

2.3 사단법인 대한가발협회에 대한 고찰

2.3.1 이익집단으로서의 사단법인 대한가발협회

이익집단(Interest group)이란 “물질적이나 정신적으로 유익하고 보탬이 되는 것”이라는 사전적 의미, 그리고 Lapalombara의 “가치의 권위적 배분에

63) “대한가발협회, 지경부 사단법인 허가”, 뷰티누리 2011.07.28., 한국산업기술진흥원-실전전략연구소, (2013 한국산업기술사 조사연구)내용 재인용

64) “민간자격 사전등록제 의무화”, 약업신문 2013.06.17., 한국산업기술진흥원-실전전략연구소, (2013 한국산업기술사 조사연구)내용 재인용

관여하고자 하는 의식적 욕구”로 정의되는 ‘이익’(Interest)이란 단어와 Bentlet의 “동일한 이익 활동을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의 집합”, 그리고 Truman의 “하나의 공통적인 특성을 갖는 개인들의 집합체 또는 이해관계를 공유한 집합체”라고 하는 ‘집합(Group)’이라는 두 단어로 나누어서 정의할 수 있다.

결국 이익집단이라 함은 “어떤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모인 집합체”(김대선,2011)로 공통된 이익을 소유한 개인들이 모여 만든 집합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Truman(1971)은 이익집단을 “어떤 한 집단의 공유된 태도에 의하여 형성된 형태의 확립, 유지 및 향상을 위하여 사회내의 타 집단에 대하여 특정한 요구를 주장하는 집단”으로 정의하며, “이익이나 관심의 결속에 의하여 연계되었으며 이러한 공유된 이익을 인지하고 있는 개인들의 결합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Berry(1984)는 “이익집단이란 어떤 동일한 목표를 공유하여 공공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노력하는 개인들의 조직화된 집단”으로 정의하고 있다.⁶⁵⁾

따라서 논의된 이익집단의 개념으로 살펴보면 사단법인 대한가발협회는 가발산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회원들의 자질향상과 산업발전에 그 목적이 있는 이익집단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김대선. 2002)

2.3.2 비영리법인으로서의 사단법인 대한가발협회

비영리법인이라 함은 영리법인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법률에 의하여 권리능력이 인정되며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과 재단을 말한다. 즉 권리가 귀속하는 주체를 권리주체라고 한다면 이 권리주체에는 살아있는 모든 사람과 그 외에 사람의 집단(사단) 및 일정한 목적을 가진 재산의 집단(재단)을 인정하고 있다.(김형수.2007) 또한, 실정법에서는 법인의 목적이 영리인

65) Almond & Powell(1978): 김대선.(2002)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강남대학교 대학원 p4 재인용

가 또는 비영리인가를 판단하기 위하여 영리(營利)법인과 비영리(非營利)법인을 구분하며 비영리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법」상의 법인과 대별되는 개념으로 비영리를 목적으로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각종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을 통칭한다.

그리고 단체는 직접 법률행위를 할 수 있고, 단체에 의하여 취득 한 권리와 의무는 그 구성원에게 귀속되었다가 단체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단체의 것으로 된다. 뿐만 아니라 그 단체를 구성하는 자연인의 재산과는 분리·독립된 단체의 재산이 인정될 수 있다(이영준, 1995).

법인제도의 필요성은 첫 번째로 법인은 개인이 할 수 없는 일을 현실적으로 실천하고 있으므로 그를 구성하는 자연인과 독립된 권리능력을 인정할 사회적 가치와 필요성이 있다(곽윤직, 1996; 김상용, 1995). 두 번째는 일정한 사람의 단체 또는 일정한 목적재산에 법인격을 부여하면, 단체 또는 목적 재산이 마치 자연인과 같은 독립된 권리주체로서 활동함으로써 법적 거래가 간편하고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장점이 있다.(김형수, 2007) 세 번째는 법인격이 인정된 법인의 책임은 법인의 행위로 인한 결과에 대해서 그 법인의 재산으로 책임을 지고, 그 구성원은 개인의 재산으로써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이다(김상용, 1995; 백태 승, 2004). 네 번째는 사적자치로부터 단체 자치가 도출되므로 현대 법에서 사적자치의 원 칙은 법인의 영역에도 인정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다섯 번째 현대사회에서 개인적 독립생활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개인이 도저히 달성할 수 없는 문제도 단체를 내세워 목적을 달성함으로써 인류사회와 문화발전에 공헌해 온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법률생활의 역사적 근원과 현실적 인 이익조정을 위해서 법인의 존재이유와 필요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김창섭, 1988: 184-1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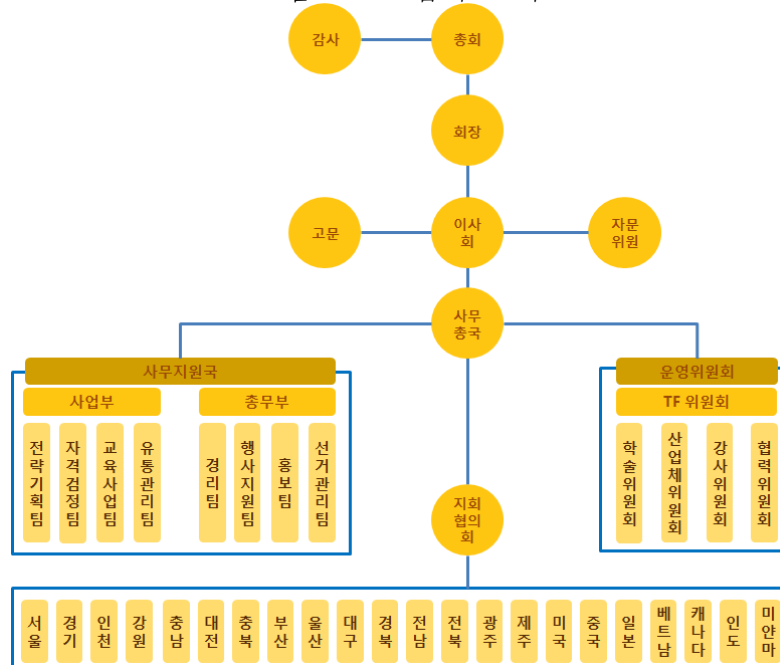
따라서 비영리법인은 원칙적으로 구성원의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수익사업의 운영을 통하여 창출된 이익을 모두 비영리 목적사업에 활용한다는 전제하에서 수익사업을 하

는 것은 가능하다(정부부처 비영리법인 업무편람.2012).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법인이나 구성원을 위해 의도적이거나 계획적으로 이윤을 추구하지 않으며, 사적 소유에 속하는 지분이 없고, 영리법인과 달리 원가회수를 위한 노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일방적인 소비활동을 하게 되며, 원칙적으로 공공성과 사회성을 활동의 기본으로 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조직이라는 용어보다 협회(Association)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한다.

2.3.3 협회 개요

- 설 립 : 2008. 01. 15.
- 소재지 :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107-11 덕암빌딩 3층
- 대표자 : 초대이사장 이현준
- 실무자 : 사무총장 윤종필 외 5명
- 연락처 : 02-6396-3388. 팩스 0303-0396-3388
- 홈페이지 : www.kowa.kr www.kiht.org
- 조직도

<그림2-5> 협회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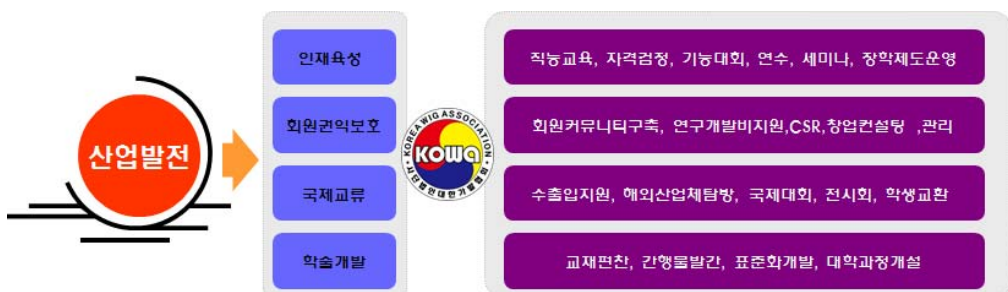
1) 설립목적

사단법인 대한가발협회는 국내외 가발산업, 두피관리 산업을 활성화하고 직업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회원 간에 단합과 정보교류의 장을 체계적으로 구축함과 동시에 사업주 및 종사자들의 직업능력개발과 전문지식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또한, 해외기업들이나 단체들과의 국제적인 교류를 통한 신소재개발 및 최첨단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여 가발, 두피관리 산업의 안정화와 국가경쟁력을 확보한다. 나아가 관련 종사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발, 두피관리 산업의 발전과 안정화, 일자리 창출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실적 및 취득

- 2008년 1월 대한가발협회, 대한두피전문가협회 창립
- 국내유일 사단법인 허가 취득(지식경제부, 제2011-32호)
- 2011 뷰티디자인엑스포 가발·두피관리 기능경연대회 주관
- 민간자격증 등록(교육과학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제2011-0878호)
- 2009~2012년 4년 연속 대한민국뷰티디자인엑스포 조직위원 단체
- 국내유일 3년 연속 가발디자인기능경기대회 개최
- 3년 연속 중소기업청 소상공인대학 창업학교 우수교육기관 선정
- 경기도지사 표창 기관
- 국제미용건강신문 우수단체대상 기관
- 가발(모발)과학연구소 설립
- 행복나눔 봉사단 설립운영

<그림2-6> 협회 주요사업



3) 주요사업 및 운영프로그램

- On-off line을 구축하여 회원 간 정보 및 기술교류를 통한 협력사업.
- 미국, 중국, 일본 등 해외거주 한인 단체들과의 사업적 교류 지원 사업.
- 외국인투자 및 해외 취업, 시장진출 등의 촉진을 위한 협조 및 지원 사업.
- 국제 협력 교류를 통해 선진국 신기술 및 학술정보 보급사업.
- 관련업체의 무역지원을 위한 수, 출입 동향분석·조사·관리사업.
- 산업의 수준향상과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한 재교육 지원 사업.
- 가발, 두피제품의 디자인 및 기능대회 등 행사, 문화컨텐츠 개발사업.
- 소비자실패구축을 위한 고품질유지에 대한 기술의 표준화, 평가인증사업
- 해외유망관련 산업전시회 참가지원 및 전시, 홍보매장 운영사업.
- 가발관련 종사자(예비자포함)의 창업, 취업 촉진을 위한 상담.
- 기술과 정보 등의 교류를 위한 온, 오프라인 간행물 발행사업.
- 자격검정사업.
- 평생교육시설 운영사업.
-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창출지원을 통한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사업.

<그림2-7> 유관기관과의 업무협력 상황



4) (사)대한가발협회의 운영상 문제점.

(1) 협회 회원 참여의 저조

현재(2014. 11.) 가발전문가 자격증(민간자격증)을 교부받은 2,000여명의 가발전문가 등 중 회원 활동율이 10% 밖에 되지 않으며 회비납부 실적 및 협회의 활동에 대한 참여저조는 협회의 활동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2) 전문가단체로서의 위상 미약

대한가발협회는 설립 이후 각종 행사와 대외적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지만 사회로부터는 물론 회원들로부터 도 전문가단체로서의 위상을 인정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 김용일(2000)에 따르면 이는 주로 회원의 참여저조와 협회의 활동부진이라는 악순환에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된다.

(3) 민간자격증으로 가발전문가 자격검정제도의 미흡

뷰티(미용)관련 전공의 고교, 대학, 학원 등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발전문가 자격증은 민간자격제도이지만 국내 유일하게 사단법인 명의로 발행되는 자격증이지만 국가자격증이 아니다 보니 전문성이나 사회적인 인식이 낮은 편이다. 현재의 실정을 고려해 볼 때 보다 그 자격기준을 강화해서 사회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Ⅲ. 연구 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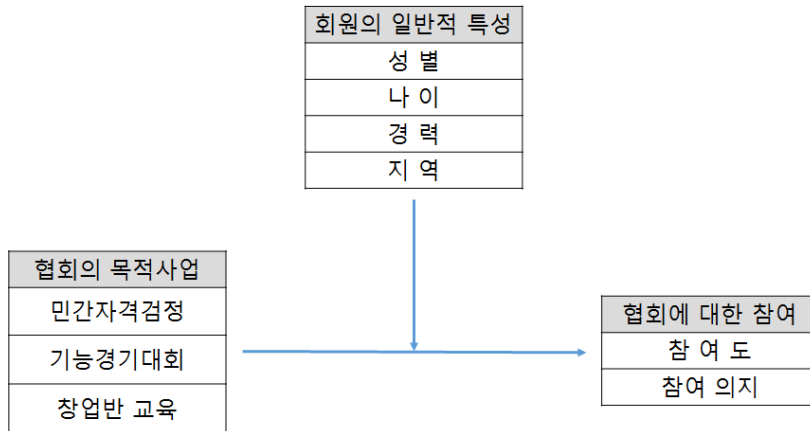
3.1 연구모형 및 가설 설정

3.1.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사단법인 대한가발협회에서 진행되는 협회의 목적사업인 민간자격검정, 기능경기대회, 그리고 창업반 교육들의 수행정도가 회원들의 성별, 나이, 경력, 지역 등 일반적인 특성들과 함께 협회에 대한 참여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판별하고 그 영향력 정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고 이를 도식화 하였다.

<그림3-1> 연구모형



3.1.2 연구가설의 설정

1)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협회에서 진행되는 목적사업의 수행정도가 참여도에 미치는 영향

1-1. 협회에서 진행되는 민간자격검정의 수행정도가 참여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1-2. 협회에서 진행되는 기능경기대회의 수행정도가 참여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1-3. 협회에서 진행되는 창업반 교육의 수행정도가 참여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협회에서 진행되는 목적사업의 수행정도가 참여의지에 미치는 영향

2-1. 협회에서 진행되는 민간자격검정의 수행정도가 참여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2-2. 협회에서 진행되는 기능경기대회의 수행정도가 참여의지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칠 것이다.

2-3. 협회에서 진행되는 창업반 교육의 수행정도가 참여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협회에서 진행되는 목적사업이 회원의 협회참여에 미치는 과정에서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조절효과와 그 영향.

3-1. 협회에서 진행되는 민간자격검정이 협회에 대한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응답자의 성별에 따라 조절될 것이다.

3-2. 협회에서 진행되는 민간자격검정이 협회에 대한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응답자의 나이에 따라 조절될 것이다.

3-3. 협회에서 진행되는 민간자격검정이 협회에 대한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응답자의 경력에 따라 조절될 것이다.

3-4. 협회에서 진행되는 민간자격검정이 협회에 대한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응답자의 지역에 따라 조절될 것이다.

3-5. 협회에서 진행되는 기능경기대회가 협회에 대한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응답자의 성별에 따라 조절될 것이다.

3-6. 협회에서 진행되는 기능경기대회가 협회에 대한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응답자의 나이에 따라 조절될 것이다.

3-7. 협회에서 진행되는 기능경기대회가 협회에 대한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응답자의 경력에 따라 조절될 것이다.

3-8. 협회에서 진행되는 기능경기대회가 협회에 대한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응답자의 지역에 따라 조절될 것이다.

3-9. 협회에서 진행되는 창업반 교육이 협회에 대한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응답자의 성별에 따라 조절될 것이다.

3-10. 협회에서 진행되는 창업반 교육이 협회에 대한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응답자의 나이에 따라 조절될 것이다.

3-11. 협회에서 진행되는 창업반 교육이 협회에 대한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응답자의 경력에 따라 조절될 것이다.

3-12. 협회에서 진행되는 창업반 교육이 협회에 대한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응답자의 지역에 따라 조절될 것이다.

2) 본 연구에서 고려되는 주요 변수들의 조작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자격검정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소양 등의 습득정도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 또는 인정된 자격(자격기본법 제1장 2조1항)을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과정.(자격기본법 제1장 2조9항)

(2) 기능경기대회

국내기능경기대회와 국제기능올림픽대회를 의미하며, 청소년기능 인력개발과 기능의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기능경기대회를 통하여 기능의 저변을 확대시키고 국제적 최신기술을 도입함으로써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운영됨.(윤은숙, 2013)

(3) 창업반 교육

창업을 목적으로 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지식과 기술 따위를 가르치며 인격을 길러주는 행위.

(4) 협회에 대한 참여

협회에 대한 참여는 가입여부, 회비납부, 참여의지(will of participation) 및 참여도(Involvement)를 말하며 참여 참여의지는 본인의 참여의지와 동료에 대한 권유의사로, 참여도는 교육에 대한참여와 행사에 대한 참여 정도로 측정된다.(김대선, 2001)

3.2 조사대상 및 조사도구

3.2.1 조사대상

본 연구에서는 사단법인 대한가발협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목적사업의 수행 정도에 따른 회원들의 협회에 대한 참여정도의 관계와 회원 개개인의 특성에 따른 관계성을 확인하고자 협회와 관련한 정회원 및 예비회원(준회원) 중 협

회교육이나 행사에 참여한 회원과 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카페 회원들에게 무작위로 선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3.2.2 조사도구

조사방법은 우편과 전자 우편, 그리고 직접전달 하였으며, 설문지의 내용은 크게 협회의 목적사업인 민간자격검정, 기능경기대회, 창업반 교육의 수행 정도에 관한 상황과 일반적 특성으로 구분하고 협회에 대한 회원들의 참여를 알 수 있는 가입여부, 회비납부, 참여도, 참여의지에 관련한 사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내용은 다음 표 <표3-1>와 같다.

<표3-1> 설문지 구성

측정변수		항목수	설문내용	문항번호
독립변수	협회목적사업	1	목적사업	I -1
		5	민간자격검정	I -2
		5	기능경기대회	I -3
		5	창업반 교육	I -4
조절변수	일반적 특성	4	성별, 연령, 학력, 전문성	IV1~4
종속변수	협회에 대한 참여	2	가입여부, 회비납부,	II -1,3
		2	참여도	III-1-1~2
		3	참여의지	III-1-3~5
기타		1	협회발전에 대한 제언 등	III-2

3.2.3 변수의 측정

1) 독립변수

본 연구의 독립 변수는 협회의 대표적인 목적사업인 민간자격검정, 기능경

기대회, 창업반 교육 등의 수행정도를 총 4개의 변수 군으로 이뤘으며, 이를 각각 5문항씩 구성하여 매우불만족=1점에서 매우만족=5점까지 리커트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또한 이 구성 중 일반적 특성은 4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 변수는 사단법인 대한가발협회에 대한 회원들의 참여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참여도, 참여의지 등 2가지로 구성하였다. 또한 이들을 총 7문항으로 구성하고 전혀 아니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리커트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3) 조절변수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인 성별, 나이, 경력, 지역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빈도분석 하였다.

3.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3.3.1 자료수집

본 연구는 협회의 목적사업과 협회에 대한 회원들의 참여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정회원과 예비회원들을 중심으로 구조화된 자기 응답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카페에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회원들과 오프라인으로 행사참여와 교육 참여를 하고 있는 회원 및 예비회원들을 중심으로 2014년 7월 24일부터 2014년 9월 23일까지 2개월 동안 직접전달과 인터넷조사의 형식을 병행하여 수집하였다. 설문지 총 300부를 배포하여 235부를 회수되어 78.3%의 회수율을 보였으며, 그 중 무응답이나, 불성실한 답변을 할 설문지 31부를 제외한 총 204부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3.3.2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통계 처리프로그램인 SPSS 19.0을 이용하였으며, 빈도분석, 요인분석, 신뢰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에 의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협회에서 진행되는 목적사업의 수행 정도와 협회참여에서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이 어느 정도의 조절효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그리고 모든 통계적 유의수준은 $p<.05$, $p<.01$, $p<.001$ 수준에서 검증하였다.

IV. 연구 결과

4.1 응답자들의 일반적 특성

응답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아래의 <표4-1>과 같이 전체 응답자는 총 204명이었고, 일반적 특성에 따라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표4-1> 응답자들의 일반적 특성

변수	구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자	26	12.7
	여자	178	87.3
연령	20대 미만	15	7.4
	20대	38	18.6
	30대	77	37.7
	40대	52	25.5
	50대 이상	22	10.8
경력	1년 이하	43	21.1
	5년 이하	74	36.3
	10년 이하	53	26
	15년 이하	17	8.3
	20년 이하	12	5.9
	20년 초과	5	2.5
거주 지역	서울, 경기권	105	51.5

	부산, 경상권	52	25.5
	광주, 전라권	29	14.2
	대전, 충청권	11	5.4
	강원권	4	2.0
	제주권	3	1.5

응답자는 여자가 87.3%, 남자가 12.7%로 절대적으로 여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 18.6%, 30대가 37.7%로 2,30대가 56.3%를 구성하여 과반수를 넘고 있었으며, 40대가 25.5%, 20대미만과 50대 이상이 각각 7.4%, 10.8%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을 보면 1년 이하가 21.1%, 5년 이하가 36.3%, 10년 이하가 26%로 10년 이하의 경력이 83.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여성의 대부분 공통된 특성인 결혼, 출산 문제 등과 맞물려 오랜 경력과 근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고 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15년 경력이 8.3%, 20년 이하가 5.9%, 20년 초과는 2.5%에 불과하다.

또한, 응답자들의 지역적 특색을 살펴보면 서울경기권이 51.5%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부산, 경상권이 25.5%, 광주, 전라권이 14.2%이며, 대전, 충청권이 5.4%, 강원권이 2.0%, 제주권이 1.5%로 지역적 취약성이 드러났다.

4.2 타당도와 신뢰도 분석

4.2.1 목적사업의 수행정도의 요인별 요인분석

본 연구의 타당성 검정을 위하여 알지 못하는 특성을 규명하고 같은 개념을 측정하는 변수들이 동일한 요인으로 묶여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독립변수인 협회의 목적사업인 민간자격검정, 기능경기대회, 창업반 교육에 대한 타당도 분석과 종속변수인 참여의지와 참여도에 대한

분석결과는 아래 <표4-2>같이 측정변수의 수와 구성개념의 수가 적당한가를 나타내는 척도로써 KMO값은 0.813로 꽤 좋은 범위에 속하므로 변수의 타당성이 확보되었으며, 요인분석모형의 적합성을 나타내는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값에서 근사 카이제곱이 검정 값이 1497.029, 유의확률이 0.000으로 나타나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협회 목적사업인 민간자격검정, 기능경기대회, 창업반 교육과 회원들의 협회참여를 알 수 있는 참여의지와 참여도의 각각의 Crombach의 알파 값은 0.844, 0.768, 0.816과 0.735, 0.717의 결과를 얻어 모두 0.7이상 이므로 신뢰성이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표4-2> 목적사업의 수행정도의 요인분석 결과

구분	성분					Crombach 의 알파
	민간자격 검정	창업반 교육	기능경기 대회	참여의지	참여도	
응시시설, 장소	.788					.844
전화상담 친절도	.786					
응시료 적정성	.776					
문제 난이도	.766					
자격증 발행기간	.736					
기술향상에 도움		.848				.816
교육비용		.820				
교육시설, 장소		.793				
강사수준		.638				
교육기간		.608				
출전비용			.740			.768
심사 공정성			.715			
대회시설			.708			
대회 진행시간			.667			
심사위원 수준			.652			
카페관심				.725		.753
동참권유				.684		
향후참여				.576		
행사참여					.657	.717
교육참여					.628	

Eigen-Value	3.534	3.077	2.847	1.591	1.367	
분산설명(%)	17.668	15.384	14.233	7.956	6.836	
KMO	.813					
구형성 검정	1497.029					
유의확률	.000					

4.3 연구가설의 검증 결과

협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목적사업 중 대표적인 사업인 민간자격검정, 기능경기대회, 창업반 교육에 관해 협회에 회원들의 참여가 얼마나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해 모집단의 가설을 설정하고 가설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표본의 분석을 통해 검증하고자 한다.

가설1. 협회에서 진행되는 목적사업의 수행정도가 참여도에 미치는 영향

1-1. 협회에서 진행되는 민간자격검정의 수행정도가 참여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민간자격검정의 수행정도가 회원들의 참여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선형 회귀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표4-3> 과 같이 설명력이 26.8%이고 $F=103.009$ 으로 유의미하다. 따라서 민간자격검정의 수행정도($t=10.149$)는 회원들의 참여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식을 정리하면 참여도 = $1.830 + 0.492 * \text{민간자격검정의 수행정도}$ 로 나타났다.

<표4-3> 민간자격검정의 수행정도가 회원들의 참여도에 미치는 영향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1	(상수)	1.830	.184		9.932	.000
	민간자격검정	.492	.049	.518	10.149	.000
$R^2=0.268$ $F=103.009$						

1-2. 협회에서 진행되는 기능경기대회의 수행정도가 참여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능경기대회의 수행정도가 회원들의 참여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선형 회귀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표4-4> 과 같이 설명력이 11.7%이고 $F=37.119$ 으로 유의미하다. 따라서 기능경기대회의 수행정도($t=6.093$)는 회원들의 참여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식을 정리하면 참여도 = $2.507 + 0.288 * \text{기능경기대회의 수행정도}$ 로 나타났다.

<표4-4> 기능경기대회의 수행정도가 회원들의 참여도에 미치는 영향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1	(상수)	2.507	.195		12.882	.000
	기능경기대회	.288	.047	.342	6.093	.000
$R^2=0.117 \quad F=37.119$						

1-3. 협회에서 진행되는 창업반 교육의 수행정도가 참여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창업반 교육의 수행정도가 회원들의 참여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선형 회귀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표4-5> 과 같이 설명력이 14.4 %이고 $F=47.233$ 으로 유의미하다. 따라서 창업반 교육의 수행정도($t=6.873$)는 회원들의 참여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식을 정리하면 참여도 = $2.363 + 0.323 * \text{창업반 교육의 수행정도}$ 로 나타났다.

<표4-5> 창업반 교육의 수행정도가 협회원들의 참여도에 미치는 영향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1	(상수)	2.363	.194		12.200	.000
	창업교육반	.323	.047	.379	6.873	.000
R ² =0.144 F=47.233						

가설 2. 협회에서 진행되는 목적사업의 수행정도가 참여의지에 미치는 영향

2-1. 협회에서 진행되는 민간자격검정의 수행정도가 참여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민간자격검정의 수행정도가 회원들의 참여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선형 회귀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표4-6> 과 같이 설명력이 33%이고 F=9.577으로 유의미하다. 따라서 민간자격검정의 수행정도(t=3.095)는 회원들의 참여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식을 정리하면 참여의지 = 3.619 + 0.170 * 민간자격검정의 수행정도로 나타났다.

<표4-6> 민간자격검정의 수행정도가 협회원들의 참여의지에 미치는 영향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1	(상수)	3.619	.209		17.310	.000
	민간자격검은	.170	.055	.182	3.095	.002
R ² =0.33 F=9.577						

2-2. 협회에서 진행되는 기능경기대회의 수행정도가 참여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능경기대회의 수행정도가 회원들의 참여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선형 회귀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표4-7> 과 같이 설명력이 24.4%이고 F=90.694으로 유의미하다. 따라서 기능경기대회의 수행정도(t=9.523)는 회원들의 참여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식을 정리하면 회원들의 참여의지 = 2.590 + 0.411 * 기능경기대회의

수행정도로 나타났다.

<표4-7> 기능경기대회의 수행정도가 회원들의 참여의지에 미치는 영향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1	(상수)	2.590	.178		14.575	.000
	기능경기대회	.411	.043	.494	9.523	.000
R ² =0.244 F=90.694						

2-3. 협회에서 진행되는 창업반 교육의 수행정도가 참여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창업반 교육의 수행정도가 회원들의 참여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선형 회귀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표4-8> 과 같이 설명력이 28.4%이고 F=111.363으로 유의미하다. 따라서 창업반 교육의 수행정도(t=10.553)는 회원들의 참여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식을 정리하면 회원들의 참여의지 = 2.438 + 0.448 * 창업반 교육의 수행정도로 나타났다.

<표4-8> 창업반교육의 수행정도가 회원들의 참여의지에 미치는 영향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1	(상수)	2.438	.175		13.946	.000
	창업반 교육	.448	.042	.533	10.553	.000
R ² =0.284 F=111.363						

가설 3. 협회에서 진행되는 목적사업이 회원의 협회참여에 미치는 과정에서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조절효과와 그 영향.

3-1. 협회에서 진행되는 민간자격검정이 협회에 대한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응답자의 성별에 따라 조절될 것이다.

회원들의 성별이 민간자격검정에 어느 정도의 조절변수로 작용하는지 분석하기 위하여 결정계수 증가분의 유의성을 확인한 결과 <표4-9> 과 같이 상호작용항이 투입되기 전의 결정계수 $R^2=.227$ (모형2)이고, 투입된 후인 결정계수 $R^2=.250$ (모형3)로 나타났으며 결정계수 증가분은 $\Delta R^2=.023$ 이다. 따라서 2.3%p의 설명력이 증가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p=.001$)

<표4-9> 민간자격검정에 응답자의 성별에 따른 조절효과

모형	R	R 제곱	수정된 R 제곱	추정값의 표준오차	통계량 변화량					Durbin-Watson
					R 제곱 변화량	F 변화량	df1	df2	유의확률 F 변화량	
1	.460 ^a	.211	.209	.35633	.211	106.537	1	398	.000	
2	.477 ^b	.227	.223	.35314	.016	8.222	1	397	.004	
3	.500 ^c	.250	.244	.34835	.023	12.008	1	396	.001	2.084

3-2. 협회에서 진행되는 민간자격검정이 협회에 대한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응답자의 나이에 따라 조절될 것이다.

회원들의 나이가 민간자격검정에 어느 정도의 조절변수로 작용하는지 분석하기 위하여 결정계수 증가분의 유의성을 확인한 결과 <표4-10> 과 같이 상호작용항이 투입되기 전의 결정계수 $R^2=.212$ (모형2)이고, 투입된 후인 결정계수 $R^2=.213$ (모형3)로 나타났으며 결정계수 증가분은 $\Delta R^2=.001$ 이다. 따라서 0.1%p의 설명력이 증가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p=.532$)

<표4-10> 민간자격검정에 응답자의 나이에 따른 조절효과

모형	R	R 제곱	수정된 R 제곱	추정값의 표준오차	통계량 변화량					Durbin-Watson
					R 제곱 변화량	F 변화량	df1	df2	유의확률 F 변화량	
1	.460 ^a	.211	.209	.35633	.211	106.537	1	398	.000	
2	.460 ^b	.212	.208	.35659	.001	.434	1	397	.511	
3	.461 ^c	.213	.207	.35686	.001	.391	1	396	.532	2.016

3-3. 협회에서 진행되는 민간자격검정이 협회에 대한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응답자의 경력에 따라 조절될 것이다.

회원들의 경력이 민간자격검정에 어느 정도의 조절변수로 작용하는지 분석하기 위하여 결정계수 증가분의 유의성을 확인한 결과 <표4-11> 과 같이 상호작용항이 투입되기 전의 결정계수 $R^2=.216$ (모형2)이고, 투입된 후인 결정계수 $R^2=.221$ (모형3)로 나타났으며 결정계수 증가분은 $\Delta R^2=.005$ 이다. 따라서 0.5%p의 설명력이 증가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p=.128$)

<표4-11> 민간자격검정에 응답자의 경력에 따른 조절효과

모형	R	R 제곱	수정된 R 제곱	추정값의 표준오차	통계량 변화량					Durbin-Watson
					R 제곱 변화량	F 변화량	df1	df2	유의확률 F 변화량	
1	.460 ^a	.211	.209	.35633	.211	106.537	1	398	.000	
2	.465 ^b	.216	.212	.35565	.005	2.531	1	397	.112	
3	.470 ^c	.221	.215	.35505	.005	2.330	1	396	.128	2.028

3-4. 협회에서 진행되는 민간자격검정이 협회에 대한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응답자의 지역에 따라 조절될 것이다.

회원들의 지역이 민간자격검정에 어느 정도의 조절변수로 작용하는지 분석하기 위하여 결정계수 증가분의 유의성을 확인한 결과 <표4-12> 과 같이 상

호작용항이 투입되기 전의 결정계수 $R^2=.214$ (모형2)이고, 투입된 후인 결정계수 $R^2=.231$ (모형3)로 나타났으며 결정계수 증가분은 $\Delta R^2=.017$ 이다. 따라서 1.7%p의 설명력이 증가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p=.003$)

<표4-12> 민간자격검정에 응답자의 지역에 따른 조절효과

모형	R	R 제곱	수정된 R 제곱	추정값의 표준오차	통계량 변화량					Durbin-Watson
					R 제곱 변화량	F 변화량	df1	df2	유의확률 F 변화량	
1	.460 ^a	.211	.209	.35633	.211	106.537	1	398	.000	
2	.462 ^b	.214	.210	.35623	.002	1.230	1	397	.268	
3	.480 ^c	.231	.225	.35280	.017	8.763	1	396	.003	2.007

3-5. 협회에서 진행되는 기능경기대회가 협회에 대한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응답자의 성별에 따라 조절될 것이다.

회원들의 성별이 기능경기대회에 어느 정도의 조절변수로 작용하는지 분석하기 위하여 결정계수 증가분의 유의성을 확인한 결과 <표4-13> 과 같이 상호작용항이 투입되기 전의 결정계수 $R^2=.206$ (모형2)이고, 투입된 후인 결정계수 $R^2=.206$ (모형3)로 나타났으며 결정계수 증가분은 $\Delta R^2=.000$ 이다. 따라서 0.0%p의 설명력이 증가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p=.846$)

<표4-13> 기능경기대회에 응답자의 성별에 따른 조절효과

모형	R	R 제곱	수정된 R 제곱	추정값의 표준오차	통계량 변화량					Durbin-Watson
					R 제곱 변화량	F 변화량	df1	df2	유의확률 F 변화량	
1	.417 ^a	.173	.171	.36474	.173	83.535	1	398	.000	
2	.453 ^b	.206	.202	.35805	.032	16.023	1	397	.000	
3	.453 ^c	.206	.200	.35848	.000	.038	1	396	.846	2.041

3-6. 협회에서 진행되는 기능경기대회가 협회에 대한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응답자의 나이에 따라 조절될 것이다.

회원들의 나이가 기능경기대회에 어느 정도의 조절변수로 작용하는지 분석하기 위하여 결정계수 증가분의 유의성을 확인한 결과 <표4-14> 과 같이 상호작용항이 투입되기 전의 결정계수 $R^2=.175$ (모형2)이고, 투입된 후인 결정계수 $R^2=.181$ (모형3)로 나타났으며 결정계수 증가분은 $\Delta R^2=.007$ 이다. 따라서 0.7%p의 설명력이 증가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p=.071$)

<표4-14> 기능경기대회에 응답자의 나이에 따른 조절효과

모형	R	R 제곱	수정된 R 제곱	추정값의 표준오차	통계량 변화량					Durbin-Watson
					R 제곱 변화량	F 변화량	df1	df2	유의확률 F 변화량	
1	.417 ^a	.173	.171	.36474	.173	83.535	1	398	.000	
2	.418 ^b	.175	.170	.36495	.001	.552	1	397	.458	
3	.426 ^c	.181	.175	.36391	.007	3.266	1	396	.071	1.928

3-7. 협회에서 진행되는 기능경기대회가 협회에 대한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응답자의 경력에 따라 조절될 것이다.

회원들의 경력이 기능경기대회에 어느 정도의 조절변수로 작용하는지 분석하기 위하여 결정계수 증가분의 유의성을 확인한 결과 <표4-15> 과 같이 상호작용항이 투입되기 전의 결정계수 $R^2=.175$ (모형2)이고, 투입된 후인 결정계수 $R^2=.189$ (모형3)로 나타났으며 결정계수 증가분은 $\Delta R^2=.014$ 이다. 따라서 1.4%p의 설명력이 증가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p=.010$)

<표4-15> 기능경기대회에 응답자의 경력에 따른 조절효과

모형	R	R 제곱	수정된 R 제곱	추정값의 표준오차	통계량 변화량					Durbin-Watson
					R 제곱 변화량	F 변화량	df1	df2	유의확률 F 변화량	
1	.417 ^a	.173	.171	.36474	.173	83.535	1	398	.000	
2	.418 ^b	.175	.171	.36487	.001	.716	1	397	.398	
3	.434 ^c	.189	.182	.36232	.014	6.627	1	396	.010	1.926

3-8. 협회에서 진행되는 기능경기대회가 협회에 대한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응답자의 지역에 따라 조절될 것이다.

회원들의 지역이 기능경기대회에 어느 정도의 조절변수로 작용하는지 분석하기 위하여 결정계수 증가분의 유의성을 확인한 결과 <표4-16> 과 같이 상호작용항이 투입되기 전의 결정계수 $R^2=.174$ (모형2)이고, 투입된 후인 결정계수 $R^2=.182$ (모형3)로 나타났으며 결정계수 증가분은 $\Delta R^2=.008$ 이다. 따라서 0.8%p의 설명력이 증가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p=.051$)

<표4-16> 기능경기대회에 응답자의 지역에 따른 조절효과

모형	R	R 제곱	수정된 R 제곱	추정값의 표준오차	통계량 변화량					Durbin-Watson
					R 제곱 변화량	F 변화량	df1	df2	유의확률 F 변화량	
1	.417 ^a	.173	.171	.36474	.173	83.535	1	398	.000	
2	.417 ^b	.174	.170	.36511	.000	.194	1	397	.660	
3	.426 ^c	.182	.176	.36381	.008	3.847	1	396	.051	1.915

3-9. 협회에서 진행되는 창업반 교육이 협회에 대한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응답자의 성별에 따라 조절될 것이다.

회원들의 성별이 창업반 교육에 어느 정도의 조절변수로 작용하는지 분석하기 위하여 결정계수 증가분의 유의성을 확인한 결과 <표4-17> 과 같이 상

호작용항이 투입되기 전의 결정계수 $R^2=.211$ (모형2)이고, 투입된 후인 결정계수 $R^2=.222$ (모형3)로 나타났으며 결정계수 증가분은 $\Delta R^2=.011$ 이다. 따라서 1.1%p의 설명력이 증가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p=.017$)

<표4-17> 창업반 교육에 응답자의 성별에 따른 조절효과

모형	R	R 제곱	수정된 R 제곱	추정값의 표준오차	통계량 변화량					Durbin-Watson
					R 제곱 변화량	F 변화량	df1	df2	유의확률 F 변화량	
1	.440 ^a	.194	.192	.36028	.194	95.554	1	398	.000	
2	.459 ^b	.211	.207	.35686	.017	8.644	1	397	.003	
3	.471 ^c	.222	.216	.35477	.011	5.707	1	396	.017	2.040

3-10. 협회에서 진행되는 창업반 교육이 협회에 대한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응답자의 나이에 따라 조절될 것이다.

회원들의 나이가 창업반 교육에 어느 정도의 조절변수로 작용하는지 분석하기 위하여 결정계수 증가분의 유의성을 확인한 결과 <표4-18> 과 같이 상호작용항이 투입되기 전의 결정계수 $R^2=.195$ (모형2)이고, 투입된 후인 결정계수 $R^2=.198$ (모형3)로 나타났으며 결정계수 증가분은 $\Delta R^2=.003$ 이다. 따라서 0.3%p의 설명력이 증가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p=.255$)

<표4-18> 창업반 교육에 응답자의 나이에 따른 조절효과

모형	R	R 제곱	수정된 R 제곱	추정값의 표준오차	통계량 변화량					Durbin-Watson
					R 제곱 변화량	F 변화량	df1	df2	유의확률 F 변화량	
1	.440 ^a	.194	.192	.36028	.194	95.554	1	398	.000	
2	.442 ^b	.195	.191	.36042	.001	.678	1	397	.411	
3	.445 ^c	.198	.192	.36029	.003	1.298	1	396	.255	1.945

3-11. 협회에서 진행되는 창업반 교육이 협회에 대한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응답자의 경력에 따라 조절될 것이다.

회원들의 경력이 창업반 교육에 어느 정도의 조절변수로 작용하는지 분석하기 위하여 결정계수 증가분의 유의성을 확인한 결과 <표4-19> 과 같이 상호작용항이 투입되기 전의 결정계수 $R^2=.195$ (모형2)이고, 투입된 후인 결정계수 $R^2=.196$ (모형3)로 나타났으며 결정계수 증가분은 $\Delta R^2=.002$ 이다. 따라서 0.2%p의 설명력이 증가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p=.390$)

<표4-19> 창업반 교육에 응답자의 경력에 따른 조절효과

모형	R	R 제곱	수정된 R 제곱	추정값의 표준오차	통계량 변화량					Durbin-Watson
					R 제곱 변화량	F 변화량	df1	df2	유의확률 F 변화량	
1	.440 ^a	.194	.192	.36028	.194	95.554	1	398	.000	
2	.441 ^b	.195	.191	.36047	.001	.577	1	397	.448	
3	.443 ^c	.196	.190	.36059	.002	.739	1	396	.390	1.961

3-12. 협회에서 진행되는 창업반 교육이 협회에 대한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응답자의 지역에 따라 조절될 것이다.

회원들의 지역이 창업반 교육에 어느 정도의 조절변수로 작용하는지 분석하기 위하여 결정계수 증가분의 유의성을 확인한 결과 <표4-20> 과 같이 상호작용항이 투입되기 전의 결정계수 $R^2=.194$ (모형2)이고, 투입된 후인 결정계수 $R^2=.195$ (모형3)로 나타났으며 결정계수 증가분은 $\Delta R^2=.000$ 이다. 따라서 0.0%p의 설명력이 증가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p=.803$)

<표4-20> 창업반 교육에 응답자의 지역에 따른 조절효과

모형	R	R 제곱	수정된 R 제곱	추정값의 표준오차	통계량 변화량					Durbin-Watson
					R 제곱 변화량	F 변화량	df1	df2	유의확률 F 변화량	
1	.440 ^a	.194	.192	.36028	.194	95.554	1	398	.000	
2	.441 ^b	.194	.190	.36056	.001	.380	1	397	.538	
3	.441 ^c	.195	.188	.36098	.000	.063	1	396	.803	1.957

4.3.3 검증결과 요약

가설 1. 협회에서 진행되는 목적사업의 수행정도가 참여도에 미치는 영향

협회에서 진행되는 목적사업의 수행정도가 참여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설검증을 위해 독립변수에 민간자격검정의 수행정도, 기능경기대회의 수행정도, 창업반 교육의 수행정도를 설정하고, 종속변수에 회원의 협회 참여도를 설정하여 선형 회귀분석을 한 결과 각각 $F=103.009$, $F=37.0119$, $F=47.233$ 로 나타났으며, 유의 수준은 모두 0.00으로 유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요인별 표준화계수 베타 값을 측정한 결과 민간자격검정은 0.518, 기능경기대회는 0.342, 창업반 교육은 0.379로 이 중 민간자격검정이 0.518로 가장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참여도에 미치는 영향에 가장 높은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가설 2. 협회에서 진행되는 목적사업의 수행정도가 참여의지에 미치는 영향

협회에서 진행되는 목적사업의 수행정도가 참여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설검증을 위해 독립변수에 민간자격검정의 수행정도, 기능경기대회의 수행정도, 창업반 교육의 수행정도를 설정하고, 종속변수에 회원의 협회 참여도를 설정하여 선형 회귀분석을 한 결과 각각 $F=9.577$, $F=90.694$, $F=111.363$ 으로 나타났으며, 유의 수준은 모두 0.01에서 유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요인별 표준화계수 베타 값을 측정한 결과 민간자격검정은 0.182, 기능경기대회는 0.494, 창업반 교육은 0.533으로 이 중 창업반 교육이 0.53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참여도에 미치는 영향에 가장 높은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1)의 가설1~가설4, 2)의 가설1~가설4에서 8개 가설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래 <표4-21>과 같다.

<표4-21> 가설 검증 결과 요약

번호	가 설	검증결과
1-1	협회에서 진행되는 민간자격검정의 수행정도가 참여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1-2	협회에서 진행되는 기능경기대회의 수행정도가 참여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1-3	협회에서 진행되는 창업반 교육의 수행정도가 참여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2-1	협회에서 진행되는 민간자격검정의 수행정도가 참여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2-2	협회에서 진행되는 기능경기대회의 수행정도가 참여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2-3	협회에서 진행되는 창업반 교육의 수행정도가 참여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3. 협회에서 진행되는 목적사업이 회원의 협회참여에 미치는 과정에서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조절효과와 그 영향.

<표4-22>와 같이 협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목적사업 민간자격검정, 기능경기대회, 창업반 교육은 회원 중 응시자의 일반적 특성인 성별, 나이, 경력, 지역이 회원들의 협회참여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가설 검증한 결과 민간자격검정에서는 성별과 지역에서 각각 R^2 변화량이 .023과 .017이며 $p=.001$, $p=.003$ 으로 유의하였으며 기능경기대회에서는 경력만이 R^2 변화량이 .014, $p=.010$ 으로 유의하였다. 그리고 창업반 교육에서는 성별만이

R²변화량 .011, p=.017로 유의하였다. 따라서 민간자격검정은 성별과 지역에 따라 참여정도가 달라 질 수 있는데 이는 민간자격검정의 성별의 특성과 검정위치에 따른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기능경기대회는 유독 경력에 따라 참여도가 많이 변화되는데 경력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끝으로 창업반 교육은 성별에 따른 필요정도가 다르기 때문으로 분석할 수 있다.

<표4-22> 가설 검증 결과 요약

번호	협회목적사업	조절변수	R ² 변화량	유의확률(P)	비고
3-1	민간자격검정	성별	.023	.001	채택
3-2		나이	.001	.532	기각
3-3		경력	.005	.128	기각
3-4		지역	.017	.003	채택
3-5	기능경기대회	성별	.000	.846	기각
3-6		나이	.007	.071	기각
3-7		경력	.014	.010	채택
3-8		지역	.008	.051	기각
3-9	창업반 교육	성별	.011	.017	채택
3-10		나이	.003	.255	기각
3-11		경력	.002	.390	기각
3-12		지역	.000	.803	기각

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한때 한국경제의 원동력 이었으며 현재도 전 세계의 가발산업의 주역으로 자리 잡고 있는 대한민국의 가발산업을 돌아보고 50년이 넘게

이어져 맥을 유지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가발산업에 새로운 지표를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단법인 대한가발협회에서 그동안 진행되고 있는 목적사업인 민간자격검정, 기능경기대회, 그리고 창업반 교육의 수행정도가 3,000명이 넘는 회원들의 협회에 대한 참여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판별하고 그 유의성 정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문헌연구와 함께 총 204부의 설문지를 표본으로 활용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번 연구는 협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표적 목적사업인 민간자격검정, 기능경기대회, 그리고 창업반 교육 들을 독립변수에 놓고 회원들의 성별, 나이, 경력, 지역 등 일반적인 특성들을 분석하고 협회에 대한 참여도와 참여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종속변수로 놓아 협회에서 진행되는 목적사업의 수행정도가 참여도와 참여의지에 각각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고 가설에 대한 채택과 기각을 검증하기 위해 타당도와 신뢰도를 분석하였으며 목적사업의 수행정도의 요인별 상관 분석과 각각의 다중회계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게 되었다.

결론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은 204명의 설문결과 여성이 87.3%로 남성에 비해 절대적인 비율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연령은 30~40대가, 경력 또한 5년 이하가 5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타 업종과 유사하게 서울, 경기권에 거주하는 것을 보아 서울, 경기지역에 3,40대 여성들이 주로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50%이상의 여성들이 결혼, 출산 등 경력관리에 있어 5년 이상을 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결론2. 협회 목적사업인 민간자격검정, 기능경기대회, 창업반 교육에 대한 타당도와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KMO와 Bartlett의 검은 값은 0.813로 꽤 좋은 범위에 속하며 각각의 Crombach의 알파 값은 0.844, 0.768, 0.816의 결과를 얻어 신뢰성이 확보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결론3. 다중회귀분석결과 목적사업 중에 참여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민간자

격검정의 표준화계수 베타 값이 0.518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민간자격검정 자체가 협회와의 접근에서 가장 손쉬운 방법이기때문에 참여도를 높이는 결과를 얻은 것으로 추정되며, 표준화계수 베타 값이 0.533인 창업반 교육은 민간자격검정과 기능경기대회 보다 회원들의 참여의지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민간자격검정이나 기능경기대회는 1회성의 접촉인 것에 비해 창업반 교육은 특성상 최소 5회 이상의 만남의 기회와 협회와 회원 간의 의사소통과 이해의 시간이 가장 많다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결론4. 목적사업의 수행정도가 협회에 대한 회원들의 참여도와 참여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한 결과 모두 정(+)의 영향으로 나타나 가설 검증에서 6개를 모두 채택하게 되었다. 또한,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이 조절 변수로서 민간자격검정에는 성별과 지역이, 기능경기대회에서는 경력이, 창업반 교육에서는 성별이 각각의 협회에 대한 참여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단법인 대한가발협회는 같은 목표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만든 조직으로써 회원전체의 권익을 보호하고 나아가 국내 가발산업의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한편 가발산업발전이라는 대의적 목표를 함께 하고 있다. 또한 가발산업 종사자들로써 직업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사업주 및 종사자들의 직업능력개발과 전문지식향상을 위해 노력의 일환으로 각종 목적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회원이 확장되고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런 목표를 더욱 더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발전하기 위한 회원들의 협회참여가 절대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론내용과 같이 회원들의 협회에 대한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창업반 교육에서 할애된 시간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협회의 목적과 취지를 공유할 수 있도록 홍보유인물이나 홍보동영상의 상영 등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활동을 유도해야 하겠다.

또한, 협회에서 진행되는 각종 목적사업을 좀 더 집중적으로 관리, 시행함과 동시에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설문 등을 통해 수집, 도출하여 그에 맞는 제도적 보완이나 서비스를 개선하고 향후 협회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외부 전문 컨설팅 지원을 받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위기관리능력 향상과 경쟁력 강화 등 협회의 활성화를 위한 변화를 모색해야 하겠다.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 박천일. (201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정책 개선 방안.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 백승묵. (2010). 비영리법인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 서미영. (2010). 중년여성의 부분 가발 착용실태와 선호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 손수철, <머리카락>, 한국모발연구회, 1993. p.178.
- 신동환.(2013).재단법인에관한연구.박사학위논문.고려대학교대학원.
- 안인재. (2013). 문화예술분야 협동조합이 문화예술 생산에 미치는 영향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 양경미. (2010). 한국영화산업의 보호정책과 이익집단의 역할에 관한연구.
박사학위논. 한양대학교대학원.
- 오경희 (2003). 비영리법인에 대한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조선대학교 대학원
- 유은숙. (2013). 기능경기대회 패션커트 작품 분석에 의한 커트 디자인
연구. 호남대학교 산업경영대학원.
- 유현심. (2010). 탈모인들의 가발착용과 관리실태 및 인식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원격대학원.
- 이수무. (1971). 우리나라 가발제조공장의 공정관리에 관한 실증적 고찰.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 장미희. (2002). 탈모고객에 대한 가발응용 및 헤어코디네이션에 관 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대구카톨릭대학교 대학원.
- 장성혁. (2013). 맞춤형가발 착용 실태 및 착용 전.후 자아존중감과

- 외모만족도. 석사학위논문. 서경대학교 미용예술대학원.
- 장수만. (2006). 미용학적 접근에 의한 탈모 및 가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대자인대학원.
- 장영길. (2013). 정부와 이익집단간의 정책네트워크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 장정은. (2010). 한국화훼장식기사협회의발전방향모색. 석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환경보건대학원.
- 전종섭. (2011). 공익법인 설립. 운영 실태 분석과 활성화 방안.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육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 정용만. (2012). 대한우슈협회 경영 전략. 박사학위논문.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 최만중. (2004). 脫毛에따른假髮着用에관한技術的考察. 석사학위논문.
한남대학교사회문화과학대학원.
- 최종호. (2012). 선진민주주의 국가의 이익집단복지정치연구.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대학원.
- 허원. (2010). 醫療法人의 課稅制度改善에 관한 研究. 박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학교.
- 현삼원. (2010). 비영리조직의 투명성제도 한미 비교연구. 박사학위논문.
승실대학교 대학원.
- 류은주. (2003). 『모발미학사』,이화.

2. 언론자료

- “불황 때 투자 역발상 성공 가발 생산 보양산업”, 동아일보 1996.09.23.
- “3D업종 기염 세계시장 80% 석권”, 한국경제매거진, 2006.09.04.
- “업계 가발사절 아주 파견”, 매일경제, 1983.01.14.
- “세계 제1을 달린다. (7)가발”, 경향신문, 1990.09.10.

김용빈, “한국가발 초장기 집권의 비밀-국제 3각분업 모델”, KOTRA 해외
비즈니스정보포털

“가내공업센터설치 정부보조금 배정”, 경향신문 1966.01.13.

“한일무역회단 보세가공, 일상지위 등 협의”, 동아일보 1966.04.22.

한국의 산업 (1971), 201, 202, 206

“가발에 돼지털 섞어”, 동아일보 1966.02.16

약속 잘 안 지켜 무너진 독점”, 경향신문, 1966.03.01.

“기능공에 쟁탈전 가발수출업체서 말썽”, 매일경제 1971.05.04.

“가발신규수출 막아 상공부, 독점수출권 규제 조항삭제로”, 경향신문
1972.07.29.

“통관제한 해제를”, 매일경제 1981.06.04.

“한국산 신발류 대미수출”, 동아일보 1981.07.02.

“외화가득률 저하”, 매일경제 1970.05.04.

“혈값으로 수출 피해 가발, 의류 등 지원책 악용”, 경향신문 1971.06.04.

“가발 수출가격 하락”, 매일경제 1971.06.08.

“가발 국제가 하락”, 매일경제 1971.10.18.

“불량 바이어 규제 가발 수출업체 ‘제값받기’ 본격화”, 매일경제 1973.05.30.

“가발시장조사단 10월 美등 파견”, 매일경제 1972.09.19.

“시장 점유율 71.3%”, 매일경제 1975.04.22.

“가발 구주수출 크게 증가”, 매일경제 1975.09.26.

“한국산 가발 90%차지”, 매일경제 1977.04.19.

“활기 띠는 미국업체”, 경향신문, 1971.04.16.

“대미 가발수요감소 한국산 영향클 듯”, 매일경제 1976.11.16.

“가발원사 관세면제 경쟁력 강화 위해”, 매일경제 1980.01.17.

“모발수출 다시 늘어 작년보다 7%신장”, 매일경제 1980.09.06.

“가발 수출 안정세”, 매일경제 1983.11.05.

“가발수출 계속 늘어 작년보다 25% 신장”, 매일경제 1989.07.06.

“가발 해외시장 다변화”, 매일경제 1987.10.05.

“‘옛 영화 해외서 찾아보자’ 가발업체 현지공장 활발”, 매일경제 1990.01.12.

“세계 제1을 달린다 7.가발”, 경향신문, 1990.09.10.
 “중기 고유 업종 단계해제”, 경향신문 1994.07.14.
 “단계적으로 풀릴 중소기업 고유 업종”, 경향신문 1994.07.14.
 “가발 KS품목 포함”, 매일경제 1994.11.16.
 “가발에 첫 KS마크, 대화”, 한국경제 1995.07.05.
 “가발, 인형용 PVC 합성원사, 대경”, 매일경제 1996.05.31.
 “가발수출격감”, 매일경제 1990.05.25.
 “신발, 가발, 피혁, 완구 작은 공장 늘어난다. 매일경제 1994.02.21.
 “정상에 오른 해외중기 현지르포 30.보양산업(국내편) 가발”, 매일경제
 1995.12.21.
 “가발 내수영업 강화, 업계 잇달아 대형매장 개설”, 한국경제 1995.04.18.
 “남대문에 가발전문상가 생긴다. 한성헤어플라자”, 매일경제 1999.09.15.
 “부분염색에 부분가발’ 美서 선풍”, 경향신문 1992.01.23.
 “남대문 가발 상가 고사 위기”, 매일경제 2001.02.01.
 “가발, 이불숨 인터넷거래 활발”, 매일경제 2003.10.14.
 “김종천 우노엔컴퍼니 사장, 열에 강한 가발로 아프리카 공략”, 한국경제
 2013.02.05.
 “우노엔컴퍼니,아프리카에 가발용원사 생산공장 건설키로”, 파이낸셜뉴스
 2013.05.06.
 “가발 기술 유출 시도 산업 스파이 4명 검거”, KBS 2008.9.24.
 “‘불황+꽃남열풍’에 가발 판매량 급증”, 한국경제 2009.03.11.
 “대한가발협회, 지경부 사단법인 허가”, 뷰티누리 2011.07.28.
 “민간자격 사전등록제 의무화”, 약업신문 2013.06.17

3. 국외문헌

- Attili, G(1990). Success ful and disconfir med children in the peer group:I nduces if sic uak ci noetence wit hin an evolutionary pers pective. Human Development . 33. pp.238-249.
- Boncher Francois, 『20000 Years of Fashion』 , (New York: Harry N. Abrams Inc. 1987), p. 306.
- DiMaggio, P. & Anheier, H. K. (1990). "The Sociology of Nonprofit Organizations and Sectors." Annual Review of Sociology . Vol. 16.
- Douglas, J. (1987). "Political Theories of Nonprofit Organizations," Walter Powell ed., The Nonprofit Sector: A Research Handbook .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Hansmann, Henry. (1987). "Economic Theories of Nonprofit Organizations." W.W. Powell ed., in the Nonprofit Sector: A Research Handbook .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 O'Neill, Michael. (1989). "Responsible Management in the Nonprofit Sector." in Virginia A. Hodgkinson. Richard W. Lyman and Associates eds., The Future of the Nonprofit Sector: Challenges, Changes, and Policy Considerations . The Jossey-Bass nonprofit sector series.
- Salamon, L. (1987). "Partners in Public Service: The Scope and Theory of Government-Nonprofit Relations." in The Nonprofit Sector: A Research Handbook , edited by W. Powell,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Travis Johng. (2011). NBSDA cosmobiz Magazine

【설 문 지】

본 조사의 내용은 통계법 제13조에 의거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적 목적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서도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설문지는 순수한 학문적 관점에서 “(사)대한가발협회에서 진행되는 목적사업의 수행정도가 협회에 대한 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의 자료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본 설문지는 무기명으로 작성되며, 조사에 대한 귀하의 모든 응답내용은 조사자의 학술적 연구만을 위해 사용될 것입니다.

각각의 문항은 본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매우 중요하오니 모든 문항에 대하여 빠짐없이 진지하고 솔직하게 답해 주시고, 확실하게 답하시기 힘든 문항은 가장 비슷한 답을 골라 응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귀하의 협조에 감사드리며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2014년. 월 일

한성대학교 지식서비스&컨설팅 대학원, 지식서비스&컨설팅학과
석사과정 지도교수 : 박현우

연 구 자 : 이현준

연락처 : (전화) 010-7485-3388. (E-mail) iht2010@hanmail.net

I. 다음 문항은 (사)대한가발협회의 목적사업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표시(v)하시거나, 간단하게 기입해 주십시오.

1.귀하는 (사)대한가발협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목적사업이 협회의 참여에 영향을 주었습니까?

1) 예 2) 아니오.

2.협회의 자격검은사업이 얼마나 잘 수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분류	번호	설문내용	사업이 잘 수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매우 만족
민간자격 검정	1	응시료 적정성					
	2	문제 난이도					
	3	자격증 발행기간					
	4	상담전화 친절도					
	5	응시 시설, 장소					

3.협회의 기능경기대회가 얼마나 잘 수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분류	번호	설문내용	대회가 잘 수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매우 만족
기능경기 대회	1	선수 출전비용					
	2	대회 진행시간					
	3	심사 시 공정성					

	4	심사위원 수준					
	5	대회 시설, 장소					

4.협회의 창업반 교육이 얼마나 잘 수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분류	번호	설문내용	교육이 잘 수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매우 만족
창업반 교육	1	교육수강비용					
	2	교육수행기간					
	3	기술향상에 도움					
	4	교육강사 수준					
	5	교육시설, 장소					

II. 다음 문항은 (사)대한가발협회의 회원서비스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표시(v)하시거나, 간단하게 기입해 주십시오.

1.귀하는 (사)대한가발협회에 가입하셨습니까?

1) 예 - 3번 질문으로 2) 아니오

2.협회에 가입하지 않으셨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협회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 2) 협회의 활동에 참여할 시간이 없어서
- 3) 협회의 활동이 내게 도움이 되지 않아서
- 4) 근무기관의 무관심 및 협조 부족으로 인해서
- 5) 가입 방법을 몰라서
- 6) 협회의 역할을 대신할 다른 단체가 있으므로
- 7) 기타

3.귀하는 지난해에 (사)대한가발협회에 회비를 납부하셨습니다가?

- 1) 예 -5번 질문으로
- 2) 아니요

4.회비를 납부하지 않으셨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협회의 활동이 내게 도움이 되지 않아서
- 2) 경제 여건상 부담이 되어서
- 3) 회비 납부 방법을 잘 몰라서
- 4) 기타

5.(사)대한가발협회의 연 회비 액수는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너무 적다. 2) 적은 편이다. 3) 적당하다. 4) 많은 편이다. 5) 너무 많다.

6.귀하는 (사)대한가발협회의 활동 내용을 어떤 경로를 통해 인지하고 있습니까?

- 1) 신문 2) 방송 3) 인터넷 4) 협회발간 자료/소식지 5) 기타

7.전문성 향상을 위해 귀하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 1) 협회 주관의 각종교육 활동 참여
2) 지역중심의 전문가 조직 참여
3) 분야별 전문가 조직 참여
4) 개인적 노력에 의존
5) 기타

Ⅲ. (사)대한가발협회에 대한 참여 정도

해당되는 곳에 표시(v)하시거나, 간단하게 기입해 주십시오.

1.그동안 (사)대한가발협회의 각종 행사 및 협회에 대한 관심에 관한 질문입니다.

번호	설문내용	참여 정도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 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그동안 협회의 각종 행사에 자주 참여하셨습니까?					
2	그동안 협회의 각종 교육에 자주 참여하셨습니까?					
3	앞으로 협회의 활동에 계속 참여하시겠습니까?					

4	동료 회원들에게 협회의 활동에 동참 할 것을 권유할 것입니까?					
5	그동안 협회에서 운영하는 카페 , 홈페이지 등을 관심 있게 보셨습니까?					

2.(사)대한가발협회에 대하여 제언을 하신다면?

IV. 다음 문항은 귀하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 되는 곳에 표시(v) 해주십시오.

1.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1) 남 2) 여

2.귀하의 나이는 어떻게 되십니까?

1) 20대 미만 2) 20대 3) 30대 4) 40대 5) 50대 이상

3.관련 경력(업무)는 어느 정도 하셨습니까?

- 1) 1년 이하 2) 5년 이하 3) 10년 이하 4) 15년 이하 5) 20년 이하
6) 20년 초과

4.귀하의 거주 지역은?

- 1) 서울, 경기권 2) 부산, 경상권 3) 광주, 전라권 4) 대전, 충청권
5) 강원권 6) 제주권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하시는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부 록

가발용어 약자해설

ADJ; ADJUSTABLE
BLK; BLACK
B. N. M. P; BACK NAPE MEDIUM POINT
B. P; BACK POINT
C. L; CENTER LINE
C/L; CURL
C/T; COATING
C. T. M. P; CENTER TOP MEDIUM POINT
D, L; DARK, LIGHT
E. B. P; EAR BACK POINT
E. E. L; EAR TO EAR LINE
E. P; EAR POINT
E. T. E. P; EAR TO EAR POINT
F. C. P; FRONT CENTER POINT
FLS; FLESH
F. P; FRONT POINT
F/R; FROST
F. S. P; FRONT SIDE POINT
G. B. M. P; GOLDEN BACK MEDIUM POINT
G. P; GOLDEN POINT
HGR; HAIR GROWTH RECONSTRUCTION)
H. L; HORIZONTAL LINE
H/L; HI-LIGHT
H/M; HAND MADE
HOS; HOLLY WOOD ON THE STREET
HP; HAIR PIECE

K. S; KOREAN STANDARD
M. P; MICRO POINTING
M/M; MACHINE MADE
N. P; NAPE POINT
N. S. G; NON SURGICAL GRAFTING
N. S. P; NAPE SIDE POINT
R. A.; RECESSION AREA

S. C. P; SIDE CORNER POINT
 S. P; SIDE POINT
 T. G. M. P; TOP GOLDEN MEDIUM POINT
 T. P; TOP POINT
 TPU; TAPE PU
 U. L; U-LINE
 WPU; WHITE PU SKIN
 WSN; WHITE SILICON SKIN
 W/T; WEFTING

패턴(일반패턴포함)표기 작업관련 용어설명

종류	패턴표기	표기색상	영문표기	설명	비고
BASENET	RE	파란글씨	ROMME L NET	BLK/FLS(검은/피부색)	
	AT	파란글씨	ART LACE NET	BLK/FLS(검은/피부색)	
	HOS	파란글씨	HOS NET	FLS/FLS-D. 망 파트 및 FRPNT에 많이 사용	
	ME	파란글씨	FINE MONO NET	BLK/FLS 조직이 총총하며 망 파트, 여성용 FULL CAP의 TOP 부분에 주로 사용	
	TIS	파란글씨	TIS NET	FLS. 조직이 총총하여 망파트 소재로 사용	
	4*4/7 *7	파란글씨	INTEGR ATION	가로와 세로의 변이 4mm 4mm net/7mm 7mm인 NET (그물망)	
	SUIN	파란글씨	SUPER INTEGR ATION	BLK/FLS 수작업된 그물망으로 한 가닥의 LINE을 직전으로 엮어서 작업	A-7 모델 사용
	SUIN-21	파란글씨	SUPER INTEGR ATION-	BLK/FLS 수작업된 그물망으로 한 가닥의 LINE을 꼬아서 엮어서 작업(2001년 개발)	

			21		
	SL-3/ SL-5	파란 글씨	SLIM LINE	A-83.4제품에 사용되며,SL-3과 SL-5가 있다 기본적으로 모발이 어느 정도 있는 고객에게 적합한모델.LINE으로이루어져있어서 가볍고통풍성이좋다.	
	OPEN MP	파란 글씨	OPEN MP	A-8-5 제품에 사용되며,둘레 NET 보다 투박한 면은 있으나 샴푸 시 두피를 직접 긁을 수있다.	
	K-1	파란 글씨	K-1 NET	주로 FREEDOM의 뒷부분에 SPAN NET 와 병행하여 사용	
	PB-1 SOFT	파란 글씨	PB-1NET SOFTNE T	주로 FREEDOM의 뒷부분에 처리에 사용되며 부드러우나 약한 단점이 있음	4 0 D NET 140D NET
	SPAN	파란 글씨	SPAN NET	BLK/FLS. 탄성이 있으며 주로 FREEDOM MODEL 의 뒷부분에 사용	
	POWE R SPAN	파란 글씨	POWER SPAN	BLK/FLS. SPAN망보다 조직이 촉촉하며 탄성이 강함	
NE T 표 기 기 타	SGL	파란 글씨	SINGLE NET	한겹 망 사용시 표기-- 기본적으로 한겹을 사용하여 무표기시 한겹를 사용함	
	DBL	파란 글씨	DOUBLE NET	두 겹망 요청 시에 표기 예)HOS/DBL -HOS NAE 두 겹 사용	
	BLK	파란 글씨	BLACK NET	검은색 망을 사용	
	FLS	파란 글씨	FLESH NET	살색 망을 사용	
PA RT	PS	검은 LINE	PU SKIN	폴리우레탄의 재질을 사용한 인조 피부(동양인의 피부색상을 연출)	파란 글씨
	LSN	검은 LINE	LIQUID	액상의 실리콘을 폴리우레탄에 도포 접착하여 만들어진 인조피부	
	WPS LSN(	검은 LINE	WHITEP USKIN	강기와 동일하나 하얀색의 피부를 연출	

	W)		WHITELI QUIDSN		
	NFP/S GL	파란 실선	NEW FRENCH PART	HOS NET위에 실크망을 덧 붙여 모근이 보이지 않도록 한다.	
	NFP/ APU	파란 실선	NEW FRENCH PART	HOS NET위에 실크망을 아래쪽 APU 덧 붙여 모근이 보이지 않도록 한다.	
	NFP/ DBL	파란 실선	NEW FRENCH PART	HOS NET위와 아래에 실크망을 덧 붙여 모 근이 보이지 않도록 한다.	
	SFP	파란 실선	SOFT FRENCH PART	HOS NET를 중앙에 두고 아랫쪽은 SJ-75,위쪽은 SILK NET로 샌드위치 작업	
PA RT 표 기 기 타	NET PART	파란 점선	NET SKIN PART	NET(망)에 직접PART(가르마)를수제 작업(BASENET와동일자재시점선표기 HOS,RE,ME,TISNET가주로사용됨(지급을요하는제품에응용시효과가 좋음	
	NET PART	파란 실선	NET SKIN PART	BASE NET 와 다른자재의 PART(가르마) 작업시 실선표기	
	HJ	빨간 점선	HAND JOINT	NETPART일경우사용되며손바느질로 연결된다. HOS망과RE망연결시사용기타의망은 작업불가능함	파란 글씨

패턴(일반패턴포함)표기 작업관련 용어설명

종류	패턴 표기	표기 색상	영문표기	설명	비고
TAPETAB	PM	검은 LINE	PU TAPE TAB	일반적으로 패치라고 하며, 클립이나 양면 테이프를 사용하여 가발을 고정	파란 글씨
	TPM	검은 LINE	THIN PU TAPE TAB	동일한 패치이나 얇게 작업하여 NSG접착에 용이하며 일반적으로 둘레 전면에 작업한다.	
	APU	검은 LINE	ADD PU TAPE TAB	가공된 얇은 박막 필름의 특수 우레탄을 사용하나 넓은 범위의 사용이 불가능하다.	
	APU' M'	검은 LINE	ADD PU TAPE TAB	박막필름을 재가공하여고객의두상과 동일하게가공처리하여작업, FRONT전면작업이가능)기본적으로 HOS1결과병행하여사용한다.	
	APU' B'	검은 LINE	PM BLK	검은색상의 PM이 요구될때 사용.	
	RBB ON	파란 LINE	RIBBON TAPE TAB	PM사용이 부적합한 고객이 사용-- PU에 부작용이 있거나 알레르기가 있는 고객이 사용하기에 적합하다.	
	TNS	검은 LINE	Tape Natural System	일반TAPETAB을이중으로하여접착 시고객의머리카락을활용하여사용. (모발을PATCH중간에서끌어내림)	
	MAT	검은 LINE	Multi Attachment	일반TAPETAB을이중으로하여접착 시 고객의 머리카락을 활용하여 사용. (모발을PATCH하단에서,끌어내림)	
FRONT	NT	파란 LINE	NATURALFRONT	수작업하여 제작하는 것으로 2mm MP에 비해 자연스러움 창출가능	2장 NT사용가능
	NT_D	파란 LINE	NATURAL	일반NT에 비하여 어두운 색상의 NT	2장 NT사용가

LINE			FRONT-DARK		능
	A/R	검은 LINE	ANTL-RELEASE	HOS NET가 쉽게 풀어지는것을 방지(FRONT HOS NET는 기본작업)	모든HOS1겹 FRONT적용
EDGE (둘레)	MP	빨간 LINE	MICRO POINT	둘레의 처리방법으로 미싱을 접어주는방법,일반적으로 MP부착이나,MP의 폭을 좀 더 넓게 작업하여 클립을 부착하여 사용하기도 함,기본은 7mm MP	5mm, 10mm 12mm,15mm
	FRONT-ACE	빨간 LINE	FRONT LACE	일반적으로RE2MM와HOS2MM를 많이사용한다,보통은FRONT부분에 사용하지만 HOSNET를사용하여1MM,6MM,13MM등FRONT및둘레에사용을함	
	H/C	검은 LINE	HAND CROCHET	손 뜨개질로 둘레를 처리	
		검은 LINE	2LINES EWIN G MACHINE	두 줄 재봉선(특별한 표기 없이 검은 선 둘레로 표기 물 시)	검은선 테두리
JOIN		검은 실선	PU JOIN	NET와 NET를 연결하는 작업.PU(폴리우레탄)을 이용하며 6MM폭으로 연결 작업함	
	MP JOIN	빨간 실선	MICRO POINT JOIN	NET와 NET를 연결하는 작업.MP이용하여 6MM폭으로 연결 작업함	
	HJ	빨간 점선	HAND JOIN	NET와 NET를 연결하는 작업.HJ(핸드 미싱)방법을 이용하여 6MM폭으로 연결 작업함	
		파란 실선	RIBBON	NET와 NET를 연결하는 작업. RIBBON TAB 을 이용하여	

			JOIN	6MM폭으로 작업함	
기 타	OP	검은	OPEN CAP	제품의 둘레는 두피에 고정시키고 일부분을 들어낼 수 있는 제품	
	BAB Y HAIR	지시서 표기	BABY HAIR	지시서 상에 (L,M,H)등의 표기가 있을 시에만 작업,표기 없을 시 미 작업	
	RFP	파란		내면 수제를 FRONT LINE 5mm 안쪽까지 수제	내면수제
	스칼 럽	파란	SCALL OP	FRONT제일앞부분의모량을FRON T부분모량의50%부터수제하여점차 모량이 증가하도록 수제.	FRONT 모량조절
	NRC	빨간 사선	NO ROOT COLO R	모의2/3되는부분을염색하지않은인 모사용,수제후뿌리부분이보이지않아 자연스럽다.	

ABSTRACT

Impact studies on the non-profit corporation business purposes participation – Focusing on the Korea Wig Association –

Lee, Hyun-Jun
Major in Management Consulting
Dept. of Knowledge Service & Consulting
Graduate School of Knowledge Service
Consulting
Hansu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project is being conducted in a private association qualified corporation for Korea wig Association , the tournament features , and performance of changeopban about the sex education of its members , age , experience, areas such as the association of members with common characteristics how to determine how much influence the degree of participation and analyzed the influence empirically. The empirical results , all hypotheses purpose all components are set for participation in the association of the members of the business is positive (+) appears hypotheses have been adopted under the influence of gender on private qualification in moderating effects of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and the region , in the Skills Competition winning , changeopban education showed the effects of each gender impact.

So look at the characteristics of each individual in order to increase

the participation of members of the Association as the contents and conclusions of this study provide a personalized service and well most of the time spent in the proportion accounted changeopban education more effectively leverage the objectives of the Association the effect should lead to more actively participate in activities such as screening of the promotional handout or a promotional video to be shared. In addition, some projects going on in the various objectives association more intensively managed, and at the same time implementing collected through questionnaires, including the anticipated problems, derived by improving the institutional support or service fits him and external consulting for the Revitalization of the future Association crisis management through active efforts, such as the ability to receive support and improve competitiveness, etc. will be looking to change for the activation of the Association.

Keywords: Wig, Korea Wig Association, Private Qualification, Technical Conference, Foundation Classes, Participation of Association.